

NEAR & FUTURE

현실에서
미래를 보다

Monthly Vol.17



NEAR

6월 1~4주 국내외 사회 · 기술 · 경제 · 환경 · 정치/행정 분야 주요 이슈

Future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범죄 및 테러 예측 시스템

SOCIETY

국내

스크린도어&공사장폭발사고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청년수당
층간소음

해외

UCLA Shooting
Shooting
Orlando tragedies
Impact Journalism Day

TECHNOLOGY

특허
스마트폰성장률
생체인식
AI 홈비서

Microsoft
WWDC
SNS attacks
Chinese 2nd space station

ECONOMY

은행 부실채권
금리인하
MSCI 선진지수
브렉시트

Most powerful Women
LinkedIn
China's A-shares
Brexit vote

ENVIRONMENT

미세먼지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신고리

Environment Day
Renewable
Natural gas
Clean energy plan

POLITICS

프랑스
불법조업
테러대상
무수단

Drug offender
Afghanistan
Gun wages filibuster
Obama's immigration plans

CONTENTS



- 02. 사회
- 03. 기술
- 04. 경제
- 05. 환경
- 06. 정치/행정



- 24. 범죄 및 테러 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배경
- 26. 빅데이터 활용 예측 치안 사례
- 30.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발전 방향



- 32. 사회
- 40. 기술
- 48. 경제
- 56. 환경
- 64. 정치/행정

NEAR & Future Monthly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 이슈 탐색을 통한 미래사회 전망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기획·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기 획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 미래전략센터 (ICT미래전략팀)

박정은 센터장 (053-230-1201, pje@nia.or.kr)

이영주 수석연구원 (053-230-1208, lyj@nia.or.kr)

박지영 선임연구원 (053-230-1224, jiyoung.park@nia.or.kr)

전인숙 선임연구원 (053-230-1217, insook.jeon@nia.or.kr)

- 이 보고서는 미래창조과학부 ‘빅데이터 기반 산업경쟁력 강화(미래전략 정책지원)사업’ 결과의 일부로 산출된 보고서입니다.
-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 무단 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www.nia.or.kr)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K-ICT 빅데이터센터(www.kbig.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

STEEP 분야별 주요동향

사회

주요동향

국내 불안감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 필요
(스크린도어, 공사장폭발사고, 섬마을성폭행, 청년수당 등)

해외 글로벌 사회의 소프트웨어 공포 확산
(Terrorism, Shooting, Gun law 등)

기술

주요동향

국내 인공지능 기반의 생태계 조성 및 서비스 경쟁 심화
(인공지능, 자율주행, 스마트홈 등)

해외 사이버위협에 대한 안전 이슈 부각
(Safety, Zuckerberg, Chinese Internet law 등)

경제

주요동향

국내 브렉시트 · 구조조정 등 대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브렉시트, 부실채권, 기준금리인하, 자본확충펀드 등)

해외 브렉시트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확대
(Brexit, IR unchanged 등)

환경

주요동향

국내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등 환경오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 확산

(미세먼지, 배출가스조작, 태양광, 경유차, 공기청정기 등)

해외 글로벌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소비 확대

정치/ 행정

주요동향

국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의지 고조
(미사일, 대북제재, 탈북, 사드배치 등)

해외 글로벌 이민 제도 및 소프트웨어 관련 이슈 증가
(Immigration, Border, Gun wages Filibuster 등)

이슈포커스

이슈포커스1

안전사고로 불거진 위험관리 외주화 및 안전관리의 중요성

이슈포커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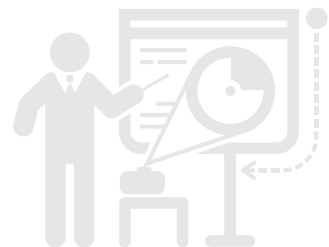
생체인식 기술의 대중화 시대 도래

이슈포커스3

브렉시트 여파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이슈포커스4

IS가 공개한 테러대상에 한국 포함



6월

〈국내〉

주요이슈

모의평가 세월호
섬마을 성폭행 고려아연
공사장 폭발사고
제주돼지
충간소음
스크린도어
중국어선 원양어선
사패산 장애인 맞춤형보육
음주운전 비자금조성
청년수당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스크린도어’와 ‘공사장 폭발사고’ 등 끊이지 않는
근로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위험관리의 외주화
문제 논란

7월 시행을 앞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청년
수당)의 논란 지속

‘충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보복 범죄가 연이어 발
생 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대기업 비리 관련 잇단 압수수색 진행,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첫 수사 착수

섬마을 성폭행, 사패산, 수락산 등의 사건 발생
으로 우범지대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방법 활동
강화 추진

〈해외〉

Good&Services Tax
Impact Journalism Day
West virginia flood
Ali's funeral
Shooting
Gun law
Single market access
Gunman
Order of Australia
Terrorism
Cincinnati Zoo
Sexual assault
Abortion law in TX
UK tuition
Orlando Tragedies
FB's suicide prevention tools
China-Australia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내 유학생 및 직장인들의 불
안감 증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미국내 총기난사 사건
으로 인한 총기 규제 강화 및 소프트테러에 대한
불안감 증가

페이스북, 자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살
예방 툴’ 서비스 제공

영국, 브렉시트 찬반 갈등으로 인한 하원의원 피살
사건 발생

미 연방 대법원이 낙태 금지 및 시술병원을 제한
하는 법을 위헌이라 판결하며, 낙태 금지 법안
추진 제동

프라이버시 침해
스마트폰성장률
자율주행 특허
5G 라인상자 리튬이온배터리
생체인증 팬택 MWC상하이
인공지능(AI) 스마트홈
조이언트 앱수수료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Space science
Facebook Live **Elon Musk**
Google glass
Safety E3 Mars
SNS attacks **Microsoft**
Chinese Internet law
iOS 10 Zuckerberg
Gravitational waves WWDC
Airbnb-SF **Xiaomi**
Chinese 2nd space station

주요 중국 기업들의 국제특허 신청 건수가 급증
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

최근 다양한 생체 정보를 이용한 인식기술이 확산
되면서, 개인의 생체정보 유출의 위험성 증가

스마트홈을 기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AI비서'
서비스의 시장 경쟁 심화

5G 상용화를 위한 기기의 경량화와 소형화를
해결할 수 있는 무선통신 기술이 개발 성공

사물인터넷·드론·자율주행차 등의 산업 육성
을 위해 전용 주파수 공급 결정

샤오미,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 1,500건을 인수
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애플, '세계개발자회의 2016'에서 이용자의 편
리성을 향상시킨 차기 운영체제 iOS 10 공개

중국, 두 번째 우주정거장 '톈궁 2호' 발사 및
화성의 우주정거장 건설 프로젝트 진행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의 SNS 계정이 해킹
당하면서, 보안을 중요시해야 하는 SNS 기업에
대한 인터넷 보안 취약성 논란

6월

<국내>

주요이슈

부동산과열 은행 부실채권
 용선료협상 추경편성
 김영란법 하반기경제정책
브렉시트
 금리인하 대기업집단
 한진해운 현대상선
 FTA MSCI선진지수
 자본확충펀드 중도금대출

브렉시트의 충격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으며, 국내증시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

기업구조조정 여파로 인해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 발표

한국증시는 역외 환전 불가와 시세정보 문제로 MSCI 선진지수 편입 실패

한국은행, 경기 하방 위험에 대비해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하

부동산시장 과열에 정부는 중도금대출 규제를 강화

<해외>

Most Powerful Women
 Ralph Lauren
 Volkswagen settlement
 Uber-Saudi China's A-shares
IR unchanged
 Rajya Sabha LinkedIn
Brexit BHS Softbank
 Toyota recall
 India-USA MSCI
 Net Neutrality
 Global Growth Forecast
 Yong Kim in India

영국은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51.9%가 탈퇴에 찬성하면서 EU탈퇴 예정

미 연준, 고용시장 불황과 브렉시트 우려로 기준금리 동결

세계은행,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2.4%로 하향 조정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가진 링크드인 인수를 발표하며, 약 3천 150억 달러의 잠재적 시장 전망

포브스, '2016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 발표

〈국내〉

〈해외〉

친환경에너지타운
녹색건축시범사업
태양광 신고리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배출권거래제
발전소
배출가스조작 경유차
기후변화 녹조
수소전기차 케이블카
스마트에너지아파트
기후기술로드맵

Saudi prince in D.C.
Low Emission Zone
Natural gas ElNino
Wind power
Environment Day
Wildlife Energy
solar project Israel
EIA Renewable
Clean energy plan Maldives
Energy tax ETE-Williams

환경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확정 발표

한·미 대기질 공동조사 결과, 화력발전 등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계획 발표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유해물질인 옥틸이소티아졸리논(OIT)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의 심리적 불안 확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울산 울주군 일대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허가하면서 원전 다수 호기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성 문제 제기

2015년 미국 내 천연가스 사용량이 처음으로 석탄 사용량 추월

UN은 세계환경의날을 지정하며, 'Go wild for life'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야생동물 불법 거래 근절 추진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글로벌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소비 확대 추진

최악의 엘니뇨로 인한 몰디브 섬의 산호 백화 현상 확산

영국,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유세 인상 방침 시사

6월

〈국내〉

주요이슈

성과연봉제 **대북제재**
채용 중국어선 사드배치 전관예우
 20대국회 **미사일** 프랑스
 쿠바 세월호 **테러대상** 구의역
불법조업 탈북 경유값 감사원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의지 고조

한강하구에서 급증하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퇴치하기 위해 민정경찰 투입

국정원은 IS테러대상에 우리 국민이 포함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테러 위협에 대한 경각심 고취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한 신사업·문화·융성 협력 확대

국회의원의 보좌관 채용에 대한 친인척 채용 금지 제한 조치 및 관련 법안 발의

〈해외〉

Drug offenders
 Russian hackers Fund misuse
 Bernie Sanders-Hillary Clinton
Immigration Super PAC
 Border Afghanistan
 Storm Colin Trump University
 Soda tax Gun wages filibuster
 Gun legislation Labour MP
 Zika funding bill

미국 민주당은 급증하는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하여 총기규제 촉구 필리버스터 15시간 만에 의회 표결 동의 획득

일본 도쿄도지사, 부적절한 정치자금 유용 논란 끝에 사임 결정

미국 정부, 백악관 고위 관리 통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연기 공식화

미국 대법원, 오바마 대통령 이민 개혁 행정 명령에 대해 기각 결정

영국 독립당 대표가 호주식 이민 점수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호주 이민 제도에 대한 관심 증가

이슈포커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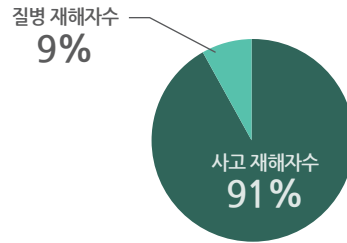
안전사고로 불거진 위험관리 외주화 및 안전관리의 중요성

근로현장의 비용절감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로 인한 비정규직의 산재사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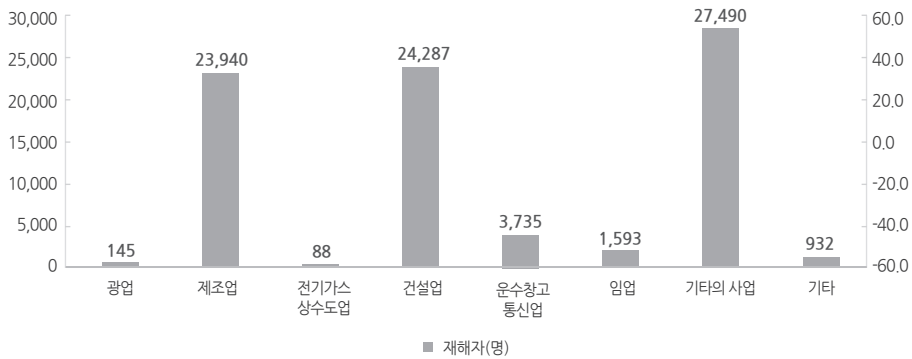
〈2015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

재해자수(명)		사망자수(명)	
사고 재해자수	82,210	사고 사망자수	955
질병 재해자수	7,919	질병 사망자수	855
계	90,129	계	1,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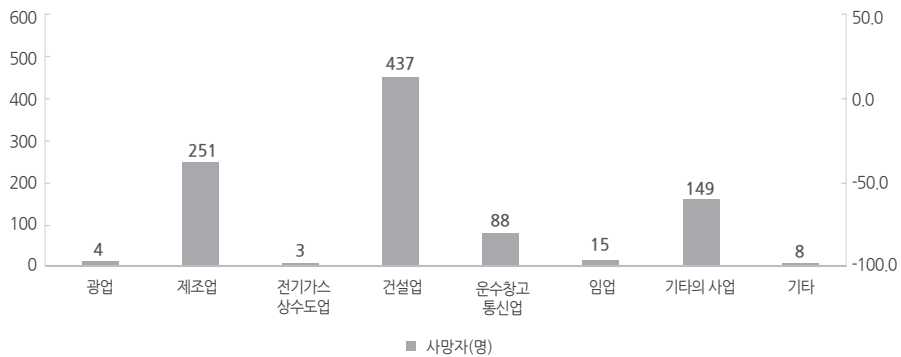
〈산업재해 비율〉



〈업종별 산재사고 재해자 현황〉



〈업종별 산재사고 사망자 현황〉



* 산재 : 사고로 인한 재해 + 질병으로 인한 재해

고용근로부에 따르면, 전체 산재로 인한 재해자(90,129명) 중 91%(82,210명)가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서도 사고로 인한 사망자(955명)는 건설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2015년 기준)¹⁾

산재사고로 인한 재해자(82,210명) 중에서도 기타사업(33.4%, 27,490명), 건설업(29.5%, 24,287명), 제조업(29.1% 23,940명)에서 대부분의 산재 발생

* 기타사업은 음식 및 숙박업 등 기타의 각종사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등을 포함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955명) 가운데 45.8%(437명)가 건설 분야에서 발생하였으며, 제조업(26.3%, 251명)과 서비스업(14.8%, 141명)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건설업과 기타사업 등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고용 구조로 인한 근로현장의 산재사고 증가

무분별한 비용절감에 따른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인해 근로현장에 대한 전문성 및 안전의식 결여로 안전사고 발생 증가

근로현장의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 증가

근로현장의 안전관리 소홀과 건설재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지속적인 안전사고 발생²⁾

공사금액과 수행업체의 규모를 기준으로 안전관리를 차별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위탁하는 소홀한 안전관리

200억원 이하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감독하는 공공발주에 대한 감독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관리 소홀과 건설재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전문가들은 근로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원청 업체들의 책임감 없는 '위험 관리 외주화' 지적³⁾

비용절감만을 생각하며 안전을 외면해온 기업풍토, 규정 없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책임감 없는 원청업체 등 '위험관리 외주화' 확산

최근 몇 년 사이 전체 산재 발생건수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위험관리의 외주화로 인해 발생하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는 이미 심각한 수준

1) '2015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안전보건공단.

2) '산재 사망 OECD 1위', 이코노미뉴스, 2016.08.18

3) '하청 노동자 죽음 내몬 '위험의 외주화'', Weekly News, 2016.06.02

최근에 발생한 근로현장의 대표적인 안전사고 사례

구분	항목
지하철 스크린도어 (구의역, 강남역, 성수역 등)	구의역, 강남역, 성수역 등 끊이지 않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건 발생으로 위험관리 외주화 논란 - 지난 5월 28일 구의 지하철역에서 고장난 스크린도어의 센서를 수리하는 도중 1명의 인명사고 발생 -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는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및 과도한 업무 부과로 인한 매뉴얼 규정 위반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⁴⁾ - 과거 강남역, 성수역 등의 유사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 준수 규칙이 개선되지 않는 등⁵⁾ 하도급 · 용역화로 인한 위험관리 외주화 논란 확산⁶⁾
지하철 근로현장 ⁷⁾ (남양주)	남양주 지하철 근로현장의 가스폭발로 인한 붕괴사고로 근로현장의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식 결여 지적 - 지난 6월 1일 남양주 지하철 근로현장에서 가스폭발로 인한 붕괴사고로 총 14명의 사상자(4명 사망, 10명 부상) 발생 - 사고 당일 안전교육명단에 등록된 근로자(23명) 중에서도 근로현장에 투입된 근로자(17명)는 하청업체 직원(3명)을 제외한 14명에 사고 발생 - 사고로 인한 14명의 사상자는 모두 일용직 근로자이며, 근로현장의 위험물질인 가스를 다루는 전문 인력도 일용직 근로자 신분으로 밝혀지면서 근로현장의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식 결여 지적
조선업 추락 및 매몰 사고 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국내 조선업은 '죽음의 조선소'라 불릴 정도로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발생으로 전문성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운용이 가능한 대책 마련 강조 - 최근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면서 울 들어 벌써 6번째 사망사고 발생 - 삼성중공업은 지난 4월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대퇴동맥을 베이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고, 작업 현장에서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고소작업대에 깔려 사망하는 등 한달 사이 연이은 산업재해 발생
KTX 근로현장 매몰사고 ⁹⁾ (호남선-수서발 KTX 근로현장)	대형건설사가 시공하는 KTX 근로현장에서도 후진국형 고속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부재 지적 - KTX 근로현장은 GS건설, SK건설, 두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후진국형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 - 호남선KTX와 수서발KTX의 근로현장에서 27건의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24명 사망 - '15년 12월 수도권고속철도 제2공구에서 떨어지는 슬라브에 매몰되어 근로자 1명사망 - '13년 1월에는 호남고속철도 오성-공주간 전차선 근로현장에서 카고크레인 바켓이 떨어져 근로자 2명 사망

근로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로환경 개선방안 마련 필요

철도를 비롯한 전기, 가스, 선박 등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근로현장에서는 비정규직 채용 및 하도급을 제한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관리 제도 정비 필요

근로현장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지원 및 안전교육 의무화를 위한 협업체계 시스템 구축 필요

사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산업보건안전법 개정을 통한 근로환경의 안전관리의무 강화 필요

근로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 및 근로자 스스로의 안전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방안 마련 필요

4) "스크린도어 사망 세 번째...작업 매뉴얼 '무용지물'", MBN 뉴스, 2016.05.29

5)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매뉴얼 안 지켜 발생했다", 연합뉴스, 2015.08.30

6) "불법 하도급이 비정규직 문제 악화시켜...위험의 외주화 심각", 시사저널, 2016.06.13

7) "남양주 지하철 근로현장 붕괴사고 사상자 14명은 모두 일용직 근로자였다", 허핑턴포스트, 2016.06.02

8) "끊이지 않는 사망사고... '죽음의 조선소' 오명", 일간투데이, 2016.07.21

9) "고리무는 철도건설사고...호남선-수서발 KTX 근로현장 16명 사망", 노컷뉴스, 2016.06.29

생체인식 기술의 대중화 시대 도래

다양한 생체정보를 활용한 생체인식 기술 도입 확대

최근 들어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ATM 인출기, 인터넷 전문은행 등과 같은 핀테크 분야에서 비대면 인증을 위한 생체인식 기술이 각광받기 시작

핀테크와 IoT 기반의 서비스(헬스케어, 무인자동차, 위치기반 등)가 확대되면서 해킹이나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한 보안 기술로 생체인식 기술이 부상

생체인식 기술은 출입국심사, 출입통제, 무인민원발급, 미아 찾기, 원격 의료 신원확인, 인터넷 사용자 인증 등 다방면에서 폭넓게 활용¹⁾

생체인식 기술 적용 분야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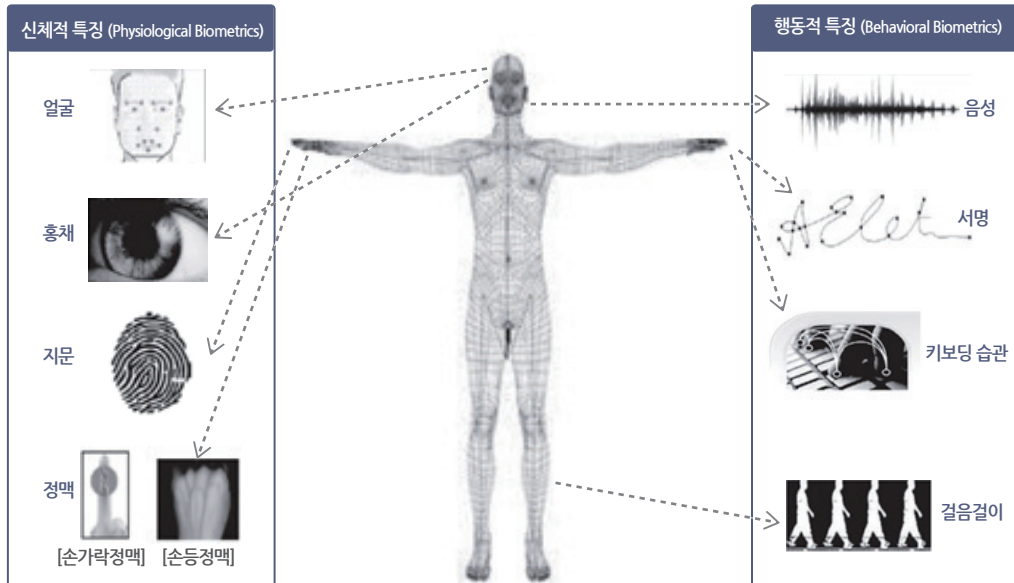
분야	생체인식 기술의 세부 내용
금융	ATM, KIOSK, 모바일 뱅킹, 증권거래, 전자상거래, 지불 및 결제 수단
보안	정보 보안 : 시스템 및 데이터 접근 제어 기기 인증 : PC/휴대폰/노트북/자동차 등의 기기 사용자 인증
출입관리	공항 : 출입국 심사, 불법 입국자 확인 기업 : 출입 통제, 근태 관리
의료복지	환자 신분 확인, 기록 관리, 원격 진료, 무인전자 처방전
공공	범죄자 식별 : 지문 대조, 성문 분석 전자주민증, 선거관리(본인 확인)
검역	체온 감지 및 안면 인식을 통한 신종플루 감염자 식별
엔터테인먼트	얼굴 인식을 통한 인물 사진 분류 및 관리, 닮은 사람(연예인) 찾기

1) "ICT와 생물학의 융합, 생체인식 기술 동향", KOTRA 상품-산업트렌드 리포트, 한해연, 2016.06

행동적 특징을 이용한 차세대 생체인식 기술 개발 가속화

생체인식 기술은 사용하는 특징 정보에 따라 신체적 특징과 행동적 특징으로 구분²⁾

생체인식기술 유형²⁾



구분		세부 설명 ¹⁾
신체적 특징	얼굴	- 카메라로 얼굴 영상을 획득하고 분석하여 사용자 인식 - 비접촉식 인식 기술로 사용자의 거부감이 적음 - 주변 밝기와 영상 촬영 각도에 민감하고, 성형수술이나 노화 등에 취약
	홍채	- 눈의 홍채 영상을 획득하고 분석하여 사용자 인식 - 일생동안 변하지 않고, 복제가 거의 불가능하며 생체인식으로 보편화된 지문보다 인식률이 높음 - 획득 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며, 시스템 구축 비용이 높음
	지문	- 전용센서로 손가락 지문의 영상을 획득하여 사용자 인식 - 인식 오류는 적으나, 지문이 손상된 경우 적용 불가
	정맥	- 손가락·손등 혈관의 적외선 영상을 분석하여 사용자 인식 - 인체 내부에 있어 외상이나 노화로 인한 변형이 적고 복제가 거의 불가능함 - 정맥 영상 추출용 하드웨어 구성이 복잡하고 소형화가 어려워 시스템 구축 비용이 높음
행동적 특징	음성	- 음성에서 추출한 독특한 특성을 이용하여 사용자 인식 - 주변 잡음이나 인식 대상의 어휘 제한 등의 한계
	서명	- 종이 서명에 대한 정적 영상이나 온라인 서명의 동적 궤적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하여 사용자 인식 - 사용이 쉽고, 빠른 인증 속도와 적은 저장 공간 사용이 장점 - 변조가 쉽고, 수전증 등 손에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이 어려움
	걸음 걸이	- 사람의 걸음걸이 특성을 분석하여 사용자 인식 - 타 인식 기술 대비 장거리에서 등록 및 인증 가능 - 외부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인식 시스템을 소형화하기 어려움

2) "생체신호 인증기술 및 표준화 동향", TTA Special Report, 김재성, 2016.05.06

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 기존의 생체인식 기술에 대한 위변조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뇌파, 심전도, 근전도, 맥박 등 신체의 행동적 특징을 이용한 차세대 생체인식 기술 개발이 가속화

국내외 생체인식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 전망

생체인식 기술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특히 핀테크 분야에서 비대면 인증을 위하여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생체인식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생체인식 시장은 지문, 홍채, 음성 인식을 중심으로 연평균 25.3%씩 성장하여, 2024년에는 149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³⁾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트랙티카(Tractica)에 따르면 전세계 생체인식 시장은 2015년 20억 달러에서 25.3%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 2024년 149억 달러에 이를 전망

향후 10년간 금융, 헬스케어, 정부 부문이 생체인식 시장의 주요 수요처로 자리매김하고 지문, 홍채, 음성 인식이 가장 큰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측

2014년 기준 생체인식 분야 세계 시장 선두 기업은 Morpho, NEC, Gemalto, 3M Cogent 등이며 이들 4개사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45.5% 차지

상위 4개 기업의 개별 점유율은 Morpho(29.5%), NEC(6.5%), Gemalto(5.5%), 3M Cogent(4%) 순으로 나타남

국내 경우, 홍채와 지문인식 시스템을 중심으로 생체인식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연평균 9.2%씩 성장하여 2018년에는 4,147억원 규모로 성장 전망³⁾

2014년 국내 생체인식 제품 매출액 규모는 1,867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2013년 1,724억원 대비 8.3% 증가, 연평균 9.2%씩 증가하여 2018년에는 4,147억원 규모로 전망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 중 홍채인식 시스템 매출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연평균 94.7%씩 증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지문인식 시스템 매출은 연평균 10.8%씩 증가 예상

국내에서는 슈프리마, 유니온커뮤니티, 닛트젠애펜퍼니 등 40여개 생체인식시스템 전문기업이 활동 중에 있으며, 이들 주요 3개 기업의 매출합계는 700억원 수준

중국, 인도, 일본 등 해외 시장 진출 비중이 30% 이상으로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음

국내외 기업에서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상용화 노력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스마트폰의 활용 증가와 함께 생체인식 기술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미국 Texas Instrument사, 애플사, 캐나다 Nym사, 일본 소니, 중국 화웨이, 한국 삼성전자, LG전자 등에서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생체신호 센서 탑재 및 스마트 폰을 이용한 생체신호 인증 기술 개발 진행

구글은 2015년 출시한 안드로이드M 6.0(마시멜로)과 안드로이드 페이에 지문인식 기능 추가하여 안드로이드 OS에 생체인식 기술 정식 지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문인식, 홍채인식, 얼굴인식 등 생체인식 기능을 이용한 로그인 솔루션인 윈도우헬로(Windows Hello)를 윈도우10뿐만 아니라 윈도우 앱, 엣지 브라우저 등 에 적용, 웹 전반에 생체 인식 보안 구현

3) "생체인식 기술 및 시장 동향 S&T Market Report, vol. 39",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2016.02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 주요 3사의 스마트폰 지문인식 기술관련 주도권 확보 경쟁 시작 및 IoT 모바일 융복합 응용서비스에 활용 전망

애플의 경우 아이폰 터치 ID 탑재, 애플페이 지문인식 지원, 터치스크린 화면을 통한 지문인식 기술 개발을 통해 스마트폰 지문인식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문/음성 인식 기술 확보를 위해 시리, 노바리스 테크놀로지스, 오센텍 등의 기업 인수

삼성전자는 갤럭시 S5부터 지문인식 기능 탑재, S6에서는 지문인식 기반의 모바일 결제서비스 '삼성페이'를 선보였고, 갤럭시 노트7에서는 홍채인식 기술 장착 계획⁴⁾

LG전자도 차기 신제품에 홍채인식 기능 도입 예정이며, LG유플러스는 핸드폰 유심에 개인생체정보(얼굴·지문)를 저장해 온라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생체인증 플랫폼을 출시('16년 8월)하고 홍채·음성·필체·걸음걸이 등의 다양한 생체인증 서비스 제공 예정⁵⁾

해외 및 국내에서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여 생체인식 기술 표준화 추진

유럽 바이오 인식 협의회(EAB, European Association for Biometric)를 중심으로 금융기관용 바이오 인식 위변조 방지기술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연구 진행

최근 모바일 결제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구글, 페이팔,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등 다수의 다국적 기업이 바이오인식 협의체인 FIDO(Fast IDentity Online) 연합과 Natural Security 연합을 통해 지급 결제 서비스에 사용되는 바이오 인식 기술의 표준 규격 발표³⁾

FIDO연합은 온라인 환경에서 바이오 인식기술을 활용한 인증방식에 대한 기술표준을 정하기 위해 2012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글로벌 생체인증 규격과 표준화 주도

FIDO연합에는 페이팔, 알리바바, ARM, 구글, 레노버, 마이크로소프트, Bank of America, Master Card 등 글로벌 금융·통신·인터넷·인증·컴퓨터·보안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삼성SDS, 크루셜텍, 한국정보인증 등의 기업과 ETRI가 참여

국내에서는 2015년 5월 발족한 국내외 전문가그룹인 KISA '모바일 생체신호 인증기술 표준 연구회'가 구심점이 되어 한국형 생체신호를 이용한 차세대 텔레바이오 인식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과 국내외 표준화 추진²⁾

ICT 융합 서비스 사업자·통신사업자·바이오인식업체 등 산업계 전문가 및 대학병원 등이 참여하여 생체신호 인증기술 표준연구회를 구성하였으며, 스마트 융합 보안서비스를 위한 텔레바이오 인식기술 표준 개발을 추진

한국바이오인식협회,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슈프리마, 솔미테크, 아이리텍, 금융보안원 등 38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

4) '공개임박 갤럭시 노트7, 홍채인식 탑재한 이유', CNBNEWS, 2016.06.17

5) 'LG유플러스 휴대폰으로 생체인증 서비스', 한국경제신문, 2016.06.15

생체인식 기술 개발과 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필요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2015년 3월)로 생체인식 인증기술이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생체인식 기술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생체인식 기술 활용에 대한 고객의 심리적 거부감 및 생체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 등의 해소 노력이 필요

비접촉식 기술을 활용하거나 간편한 획득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거부감을 최대한 해소함으로써 생체인식의 편의성 향상

생체정보를 분할해 서로 다른 곳에 저장 후 이를 인증 시 재결합해 사용하는 분산관리 방식의 도입으로 정보유출, 정보 남용 및 사용자의 불안감 방지 가능⁶⁾

해킹·악성코드에 의해 각종 기기에 저장된 생체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법 기준과 감시체계를 강화

생체인식 정보의 ‘수집·관리·폐기’ 전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 기술력 축적을 통한 대 고객 신뢰 구축 필요

생체인식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생체인식 정보 위변조 탐지기술과 자유로운 폐기를 위한 생체정보 변형기술 등의 적용 필요⁷⁾

생체인식 기술 개발에는 다양한 기술의 융합과 교류가 필요하며 생체인식 기술의 산업적 육성을 위해 정부 지원,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관련 기술 표준화 및 법·제도의 개선과 정비 필요

6) '생체정보 분산 저장 금융거래 해킹 막는다', 서울경제신문, 2016.07.06

7) '내 몸이 비밀번호가 되는 생체인증 안전할까?', 머니투데이방송, 2016.06.14

이슈포커스3

브렉시트 여파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영국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이민자 관련 문제의 증가로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

'16년 국민투표 결과 영국의 브렉시트(EU탈퇴)가 결정, 탈퇴 지지의 배경에는 이민자 증가로 인한 문제 및 장기 경기침체가 핵심으로 작용

유럽 재정위기로 촉발된 영국의 EU 잔류논의는 '15년 보수당 집권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6년 2월 [영국-EU간 협상안]이 타결된 후 국민투표 실시로 이어짐

*협상안의 주요 내용은 유로화 미 사용국가로서의 경쟁력 확보, 영국에 불리한 EU 규제 철폐, 영국의 정치적 자주권 강화, 이민자 복지 축소 등

협상안 타결에도 불구하고, '16년 6월 23일 실시된 국민투표로 EU 탈퇴가 결정되었으며, 탈퇴 지지파들은 영국의 자주권 회복, 이민 통제, 복지 예산 절감 등을 기대

브렉시트는 영국 및 유럽의 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전문기관들은 브렉시트 여파로 영국 경제의 경쟁력 감소 예상

영국 재무부는 올해 5월 EU 탈퇴 후 유예기간(2년)인 '18년까지 실업자 52만명 발생(실업률 1.6%p 상승), 경제 성장률 3.6% 위축 예상¹⁾

국제통화기금(IMF)은 영국 GDP가 최대 5.5%까지 줄어든 수 있다고 전망²⁾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영국 경제가 0.8% 위축 가능성 제기²⁾

유럽국들과 관계된 영국 내외부의 산업은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성의 증가로 혼란 예상

영국은 유럽과의 관계 악화로 타 EU회원국 보다 경제 성장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 등 다방면에서 영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¹⁾

*기업 및 금융기관의 EU시장 접근 제한으로 인한 상품·서비스 수출 악화

*이민자 유입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및 소비지출 감소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둔화

또한, 영국 내 활동하고 있던 EU 회원국들은 브렉시트 이후 규제 불확실성 증가로 전방위산업의 위협을 받고 있음

1) '주간 금융브리프-브렉시트가 영국 및 주요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2016.07.16

2) "IMF "영국 GDP 최대 5.5% 감소"...OECD "브릭스 성장률 0.3%p 하락", 한국경제, 2016.06.24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관계된 산업의 영향 전망³⁾

산업분야	변화 예상 내용
항공업계	전 : 유럽, 미국 등 주요국 항공사들은 유럽 공항 이용 시 이착륙 사전허가 필요 없음 후 : 영국 항공은 별도의 EU 규제 및 공식 비행경로 승인이 필요한 형태로 변경될 전망
에너지 업계	전 :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주도하는 영국 지역의 원자력 발전 건설 프로젝트는 '14년 유럽위원회의 동의와 영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약속을 받음 후 : EU와의 관계 변화로 영국 정부의 자금 지원 여부 및 이후 전기의 유럽 수출 여부 또한 불투명
제약 업계	전 : '18년까지 영국 내 제약과 화학 특허를 전담하는 국제지재권 재판소를 설립하여 유럽 내 지재권 유통의 비용 절감을 기대 후 : EU 지적재산권 통합 및 의약관련 재판소 설치의 불확실
화학 업계	전 : 유럽 국가들은 공통된 화학 등록 표준 절차 이용 후 : 유럽의 화학기업들은 영국 기업들이 REACH(EU의 화학 등록 절차)의 관리 체계를 따르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
정보통신 업계	전 : 영국의 정보통신 기업들은 자국민이 EU회원국 여행 시 추가적인 로밍통화 비용 부과하지 않음 후 : 통화료 경감 및 로밍 지원 서비스 불투명
요식 업계	전 : EU회원국의 식품회사들이 영국 진출에 용이 후 : 향후 통화 변동성 및 EU와 다른 규제 적용으로 영국 내 상품 생산의 어려움과 고용비용 상승을 전망

브렉시트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가중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증가

세계 주요국 증시는 폭락하고 불확실성으로 인한 채권 가격은 상승하였으며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 엔화는 강세이나 영국 파운드화와 유로화 가치는 급락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이 지연되고 가계의 소비심리 또한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 가능성 제기

주요 기관에서는 올해 EU 및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여 발표⁴⁾

3) "Uncertainty, especially about regulation, spreads among industries most exposed to Britain", The Economist, 2016.07.09

4) "TRADE FOCUS - 환 · EU FTA와 브렉시트(Brexit)",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6.06

주요 기관별 브렉시트 이후 세계 및 주요국 경제성장을 전망⁴⁾

지역	기관	전망			
세계	IMF	올해 3.2%(4월 전망)	일본	미즈호종합연구소	0.3~0.8%p 감소
	모건 스탠리	2.7~2.8%(3%에서 하향조정)		미쓰비시UFJ 모건스탠리	0.34~1.11%p 감소(2018년)
	골드만삭스	올해 3.1%(3.2%에서 하향조정)			
유로존	OECD	1.1%p 감소(2018년)	미국	도이체방크	0.4%p 감소(1년간) 1.5%p 감소(3년간)
	골드만삭스	올해 1.5%(2.0%에서 하향조정)			

자료 : 각 기관별 전망 취합

세계 주요국은 브렉시트 영향은 단기적일 것으로 예상

미국 - 영국 대상 수출비중이 낮아(작년기준 3.0%) 실물경제가 받는 영향은 미미하나 달러화 강세로 인한 단기적인 금융시장 혼란 예상⁴⁾

또한, 올해 추진되던 금리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

중국 - 단기적으로 영국, EU회원국과의 수출입 감소가 예상되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
한편, 영국을 거점으로 추진해 온 위안화의 기축통화화에는 불리하게 작용⁵⁾

일본 - 엔화 강세가 1년 이상 유지될 경우, 주요 수출기업의 영업이익은 기존 예상보다 9천억 엔(약 10조 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⁶⁾

브렉시트가 전세계 보호무역주의를 심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에 대한 우려 증가

고립적 성격을 지닌 브렉시트가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의 흐름을 제동을 걸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에 대한 우려 증가⁵⁾

또한, 영국과 EU의 실물경기 충격, 금융 불확실성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이어져 세계 교역 부진 및 중국 등 신흥국(한국 포함)의 성장세를 낮춰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⁶⁾

국내 경제에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변국의 상황 변동으로 인한 간접 효과에 대한 고려 필요

한국은 유로존 재정위기와 유사한 형태로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따른 EU 내 수출 둔화 또는 감소가 예상됨

한국은 영국, EU회원국 대상 수출비중이 낮아(작년기준 10%) 실물경제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높음

또한, 무역관계에서 중간재의 수출 둔화 및 소비재의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나타남

* (중간재) 철강(수출 6위), 반도체(7위), 원동기펌프(11위) 등

* (소비재) 자동차(수출 1위), 영상기기(22위), 전자용용기기(25위) 등

* 자동차는 엔화강세로 일본에 비해 수출둔화 영향이 작을 가능성 있음

반면에 국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와 달러, 금, 엔화 등에 대한 가치 상승으로 원화약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강화 등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예상

5) "불확실성의 시대..." 세계경제, 올 3% 성장도 어려워진다, 연합뉴스, 2016.06.26

6) "브렉시트>보호무역>가침제...한경제 '연쇄충격' 우려', 문화일보, 2016.07.14

한국은 EU, 영국 사이의 FTA 및 경제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

'16년은 한EU, 한영 FTA 발효 5년차를 맞이하며 수출 증가 등 호조세가 기대되는 시점이었으나 브렉시트 이후 변동성 증가⁴⁾

한EU FTA : '15년부터 EU수출 증가, 적자 감소 등 성과가 가시화되던 시점이었으나, EU와 영국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한영 FTA : 영국은 올해 FTA 수혜품목의 수출이 20.6% 증가하였으며, 한국 기업이 영국 수출 시 FTA 활용 비율도 80%를 상회하던 상황

* 한EU FTA의 경우, 자동차, 부품, 축전지, 화학제품 등이 수출 증가를 주도하며 한국이 EU역외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FTA 발효 전에 비해 증가(2.25% → 2.43%)

향후 한영 무역 관계에서 FTA 관세 등 요건이 변하는 시기를 고려한 전략 구성이 필요⁷⁾

'18년 이후 한국산 물품은 영국에 수입될 때 한EU FTA 특혜관세(무세) 대신 영국이 새로 제정하는 MFN 실행세율(수입 금액의 약 54%에 관세) 부과

무역업계는 향후 영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영 FTA는 한EU FTA를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

한국은 글로벌 시장의 산업 전략 검토와 함께 보호무역주의 대비 교역국과의 협의 강화 필요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금융환경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기업들의 대외 수입 · 수출 전략 지원

영국 탈퇴 후 한EU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한 보상문제 등 협상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구성이 중요한 시점

영국의 EU탈퇴 결정 이후 보호무역주로 연결되는 최근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적 플랫폼을 통해 주요 교역국과의 협의 강화 필요⁸⁾

7) "발버란 한 · EU FTA 발효 5주년. "한 · 영 FTA 준비해야", 조선비즈 2016.06.29

8) "자본시장Weekly-브렉시트가 세계 및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연구원, 강현주

이슈포커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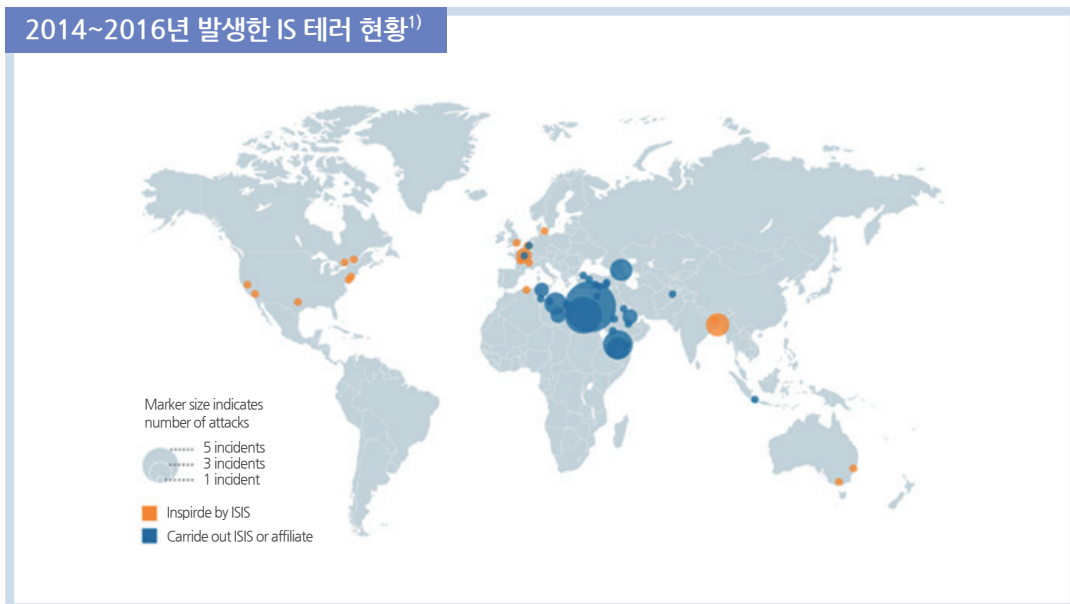
IS가 공개한 테러대상에 한국 포함

물리적 테러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21세기형 테러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IS

2015년 11월 파리 테러, 2016년 3월 벨기에 테러 등 IS의 전세계 대상 테러활동은 최근 들어 더욱 빈발

IS가 국가 수립 선포 이후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29개 국가에서 143차례의 테러를 자행, 살해된 인원만도 2,043명¹⁾
최근 프랑스 니스 트럭 테러 등을 포함해 유럽에서 18차례 테러를 감행, 북미에서도 IS와 연계된 테러가 8건 발생

2014~2016년 발생한 IS 테러 현황¹⁾



IS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홍보·선전 활동이 활발한 21세기형 테러세력²⁾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킥(Kick), 에스크닷에프엠(Ask.fm), 브이케이(VK) 등의 인터넷 및 SNS를 통해 청소년을 포함한 수백만명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일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파

이번에 한국인을 테러대상으로 지목한 ‘유나이티드 사이버 칼리파’는 미국이 이슬람과의 사이버 전쟁을 선포한 것에 뒤이어 결성³⁾

IS는 2016년 4월에 독립적인 4개의 친IS 사이버 팀들을 묶어서 ‘유나이티드 사이버 칼리파’를 조직

*기존에 독립적으로 활동했던 4개의 친IS 사이버 팀은 ‘Sons Caliphate Army’, ‘Caliphate Cyber Army’, ‘Ghost Caliphate Section’, ‘Kalashnikov E-Security Team’이라고 함

아직까지는 정교한 디지털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지만 결코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불가

1) 'ISIS goes global: 143 attacks in 29 countries have killed 2,043', CNN, 2016.07.26

2) '이슬람국가(IS)와 글로벌 테러 그리고 한국(서정민)', 경제와 정책 228호, 2015.03

3) 'ISIS is assembling a cyber army', BGR, 2016.04.28

국정원, IS의 테러대상에 우리 국민 포함 확인, 테러 위협에 대한 경각심 고취 강조

국가정보원은 IS가 국내 미국 공군시설과 우리 국민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테러 대상으로 지목하고 선동한 사실 확인⁴⁾

ISIL의 해커조직 '유나이티드 사이버 칼리파(United Cyber Caliphate)'는 최근 전세계 미국·NATO 공군기지 77개의 위치와 21개 국가 민간인의 신상정보를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

* ISIL : 이라크 · 레반트 이슬람국가 · IS의 다른 이름

우리나라의 경우 오산 · 군산 소재 美 공군기지의 상세 좌표 · 홈페이지와 함께 국내 복지단체 직원 1명의 성명 · 이메일과 주소까지 공개

우리 국민 신상정보는 복지단체 사이트 해킹을 통해 확보했고, 미국 공군기지 좌표는 인터넷 공개자료 등을 종합한 것으로 보임

만약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한 미 공군과 군 · 경 등 유관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은 경찰을 통해 신변보호를 조치

국가정보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IS의 꾸준한 테러 위협에 대해 국민들의 경각심 고취 필요성 강조

또한, '테러방지법' 시행으로 신설된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테러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힘

최근 들어 IS의 테러 대상으로 계속 지목되고 있는 한국

IS는 작년 9월 이래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테러대상 국가로 지목⁵⁾

'15년 9월, IS의 온라인 영문 선전지 '다비크(DABIQ)'에서 국제동맹군 합류 국가를 '십자군동맹국'으로 지칭 (한국(남한)을 포함)

'15년 11월, IS는 테러 위협을 담은 온라인 영상에서 'IS에 대항하는 세계 동맹국'이라며 60개국 국기를 표시하며 태극기도 포함시킴



4) 'ISIL, 曄 미군 시설과 우리 국민 테러대상 지목'(보도자료), 국가정보원, 2016.06.19

5) 'IS, 우리 국민 테러대상 지목 두 번째...계속되는 테러선동', 연합뉴스, 2016.06.19

'16년 초, 해킹을 통해 입수한 우리나라 국민 명단(20명)이 포함된 동영상 공개

'16년 6월 7일(세계언론 보도 일자), 우리나라 오산·군산 소재 미국 공군기지의 구글 위성지도와 상세 좌표·홈페이지를 공개하고 국내 복지단체 직원 1명의 성명·이메일·주소 공개하며 테러대상으로 지목

IS 관련자의 국내 존재 또는 활동도 적발되어 국가정보원이 추방 등 조치⁶⁾

'10년부터 국내에서 근로자로 일했던 외국인 7명이 출국 후 IS에 가담한 사실을 국정원이 파악

국정원은 또 같은 기간 IS를 포함한 국제 테러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 외국인 51명을 추방

'15년 11월~'16년 1월간 약 두 달 사이에만 3명의 외국인 테러 단체 관련 혐의자를 강제 출국시킴

IS 테러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 조성 등을 고려한 정부의 신중한 조치가 필요

국가정보원은 대국민 경각심을 위해 해당 내용을 공개했으나 이 과정에서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국가기관의 개인 정보 공개로 인한 해당 인물과 지역의 불안감 조성 등 문제점 대두⁷⁾

현재 IS의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은 사이버상에서만 존재하며, IS의 사이버 선동·선전 조직의 심각한 파괴력은 아직 미지수

이에 대한 정부의 과장되거나 무분별한 경고는 불필요한 사회·정치적 갈등 요소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신중한 정부의 대국민 조치가 필요

6) "외국인 근로자 IS 가담, 테러 관련 가담자 51명 추방, 7명이 IS,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 MBN, 2016.01.20

7) "IS 테러 대상이었던 한국인, 테러 위협 없었다", 한겨레, 2016.06.20

— Future —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범죄 및 테러 예측 시스템

작성 : 박동진 / 한림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연구이사
한국언론학회 건강커뮤니케이션분과 간사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범죄 및 테러 예측 시스템

범죄 및 테러 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배경

각종 테러 및 소요 사태가 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4.7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 테러는 물론 모방 테러와 자생적 테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예기치 않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국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¹⁾ 이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표 1>과 같이 최근 5년간 강력 범죄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²⁾ 5대 강력범죄의 경우 2005년 이후 19%가 증가했는데, 살인과 강도는 다소 줄어든 반면 절도는 41.4%, 강간·강제추행은 무려 189.4%나 급증 하였다.

표 1

사이버경찰청 2016, 단위: 건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계
2005	1,061	5,170	7,316	188,780	285,363	487,690
2006	1,073	4,838	8,755	192,670	281,969	489,305
2007	1,111	4,439	8,726	212,458	295,156	521,890
2008	1,109	4,811	9,883	223,216	305,508	544,527
2009	1,374	6,346	10,215	256,590	315,841	590,366
2010	1,251	4,409	18,220	269,410	292,347	585,637
2011	1,204	3,994	19,491	281,359	311,862	617,910
2012	984	2,586	19,619	290,055	311,712	624,956
2013	928	1,978	22,292	287,704	293,475	606,362
2014	910 05년 대비 85.8%	1,597 05년 대비 30.9%	21,172 05년 대비 289.4%	266,853 05년 대비 141.4%	289,862 05년 대비 101.6%	580,394 05년 대비 119.0%

<한국인권뉴스 2016.04.17>

[5대 강력범죄 발생 현황]

1) "항 총리, 테러 하루 평균 4.7건... 모든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야", 뉴시스, 2016.07.17.
2) "일상을 파고든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감", NEAR & Future, Vol. 16, pp.9-12.

테러와 강력범죄 등 국내외의 국민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치안 및 범죄 예방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예측 치안(predictive policing) 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범죄예측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이 미래의 사건과 사고를 예측할 수 있다면, 정부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학계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심지어 빅데이터의 예측력을 기반으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³⁾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2002년)에서 그려졌던 미래 범죄의 예측과 치안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 오라클, IBM, 후지쯔,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세계적 IT 기업들은 범죄예방, 테러, 위협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빅데이터 솔루션을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고 있으며, 미국 로스엔젤레스나 애틀란타,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는 지역별 범죄현황을 빅데이터로 구축해 어느 곳이 위험한지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범죄 지도(Crime Map)’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작된 범죄 지도를 기반으로 범죄율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치안의 결과, 미국 로스엔젤레스와 애틀란타에서 실질적인 범죄율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⁴⁾

그림1



[범죄의 발생을 미리 예측, 치안을 유지하는 미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2002)]

3) "Using big data to predict collective behavior in the real world",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014, 92-93.

4) <http://www.predpol.com/results/>

빅데이터 활용 예측 치안 사례

미국 - '프레드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 예측 사례

로스앤젤레스 경찰청과 캘리포니아 지역 대학들의 공동 연구팀은 지진 예측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그림2>와 같은 프레드폴(PredPol)을 개발하였다. 프레드폴은 과거 80년 간 발생한 1,300만 건의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고 특정 지역에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활용된다. 이 범죄 예측 프로그램은 과거의 범죄 기록을 사용하여 특정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을 지도상에 붉은 점(hot spot)으로 표시하여 경찰차의 순찰을 강화하도록 알려주었다.<그림3> 이것은 범죄의 발생이 지역의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많은 범죄가 동일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프레드폴은 과거의 데이터 뿐 아니라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범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범죄의 유형을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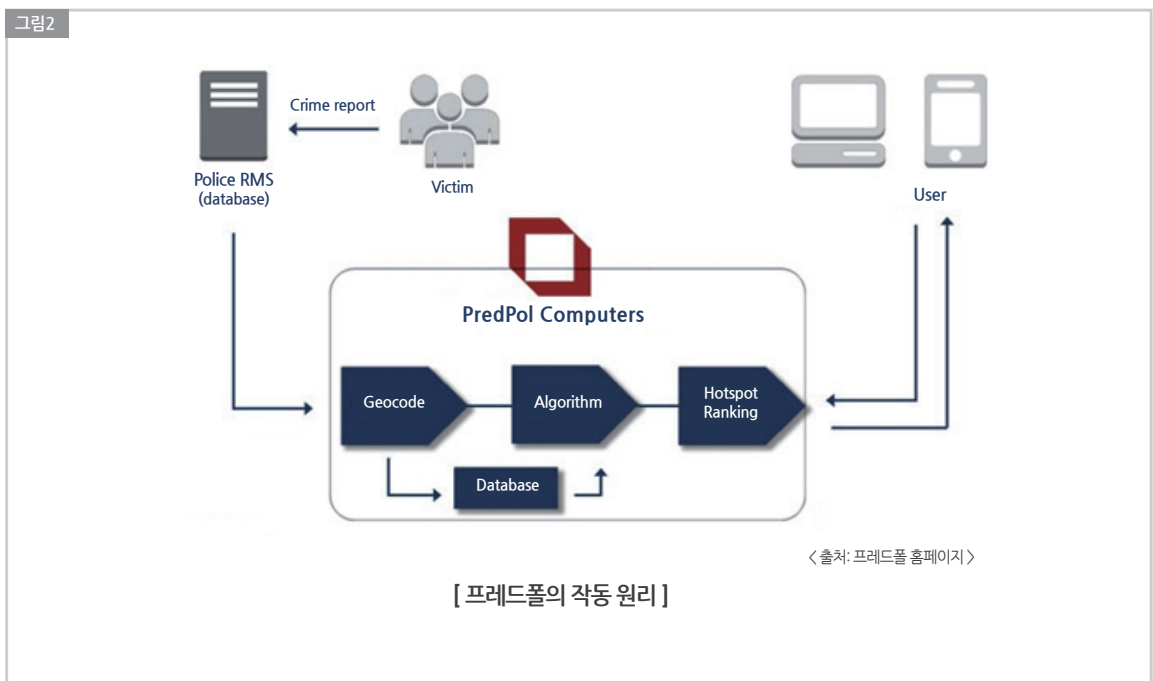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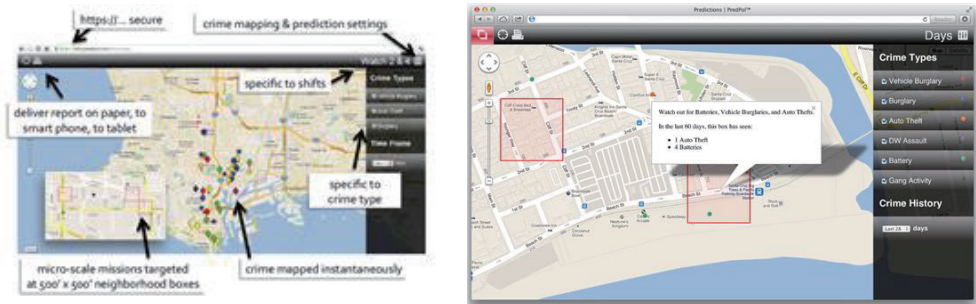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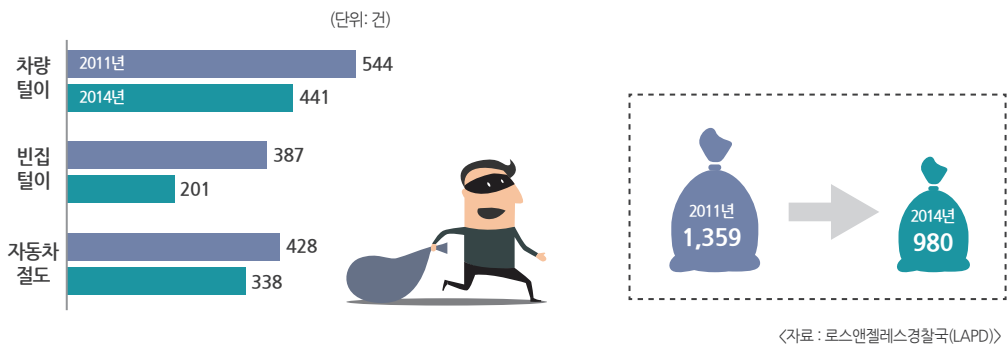
그림3



[프레드폴 적용 화면]

프레드폴 기술은 미국은 물론 해외에서 범죄의 유형 및 발생 빈도에서 극적인 감소를 가져 왔다. 2013년 이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애틀란타 지역에서는 특정 범죄율이 적게는 10%에서 20%까지 감소하였다. 로스앤젤레스 풋힐 경찰서의 관할 구역에서는 프레드폴의 도입 후 차량털이가 19%, 빈집털이가 48%, 자동차 절도가 21%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범죄율이 28%나 하락하였다.<그림4>

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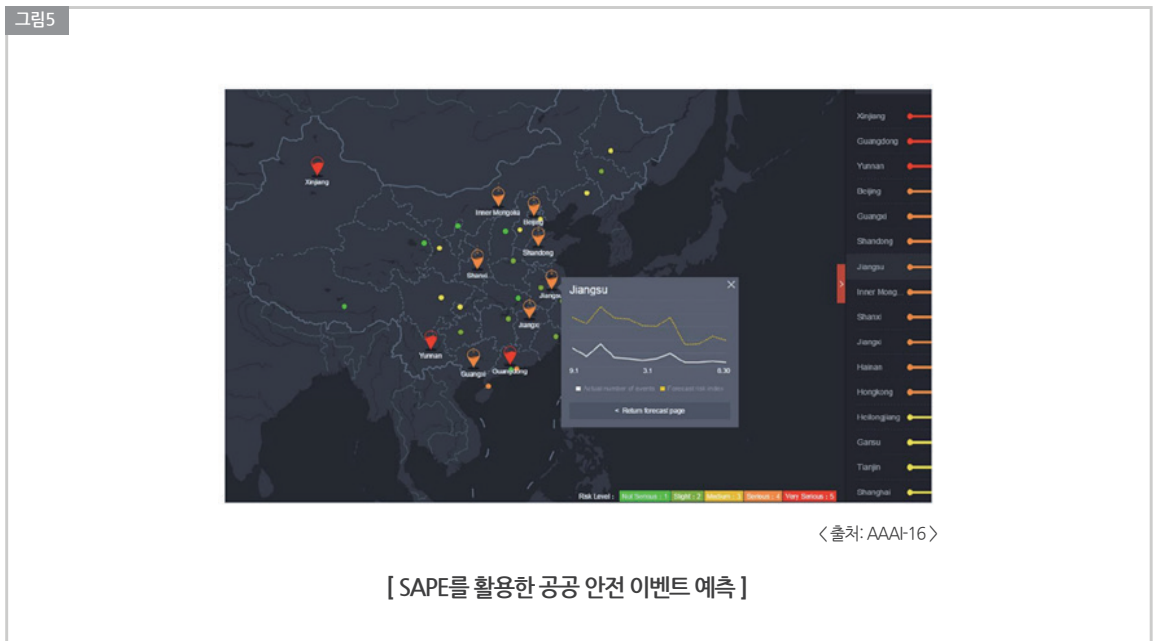
[프레드폴의 도입 후 변화]

중국 - 테러 예방에 빅데이터 활용

2015년 12월 반(反)테러 법이 통과되면서 중국 정부는 감시 조직으로서 공공의 안전과 테러방지를 위해 보다 쉽게 데이터의 접근과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 법은 중국 내 진출한 보안 관련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법률의 제정 뿐 아니라 과거부터 내부 치안 유지와 안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다. 최근에는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내부 치안과 안정을 위해 방위비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관련 기술의 개발은 물론 관련 시장의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중국은 테러리스트를 사전에 검거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활용하여 온라인 프로파일링과 이용 데이터(온라인 행위, 금융 거래, 방문 기록, 미팅 기록 등)를 분석하고 있다.⁵⁾ 특히 중국 정부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사진 정보를 바탕으로 감시 비디오에 잡힌 사람들의 얼굴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 분야의 연구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궁극적으로 많은 군중들이 모인 곳에서 테러리스트에 의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을 예측하기 위해 “상황 인지 공공 안전 평가 플랫폼(SAPE, Situation-Aware Public Security Evaluation platform)”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시스템은 1998년 이후 발생한 각종 공공 안전 행사에 관한 웹사이트 뉴스의 분석을 통해 위험 수준과 발생 가능성을 점수화하여 사건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입증 하였으며 중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5>은 과거 1년의 실제 공공 안전 이벤트의 빈도와 SAPE의 예상되는 위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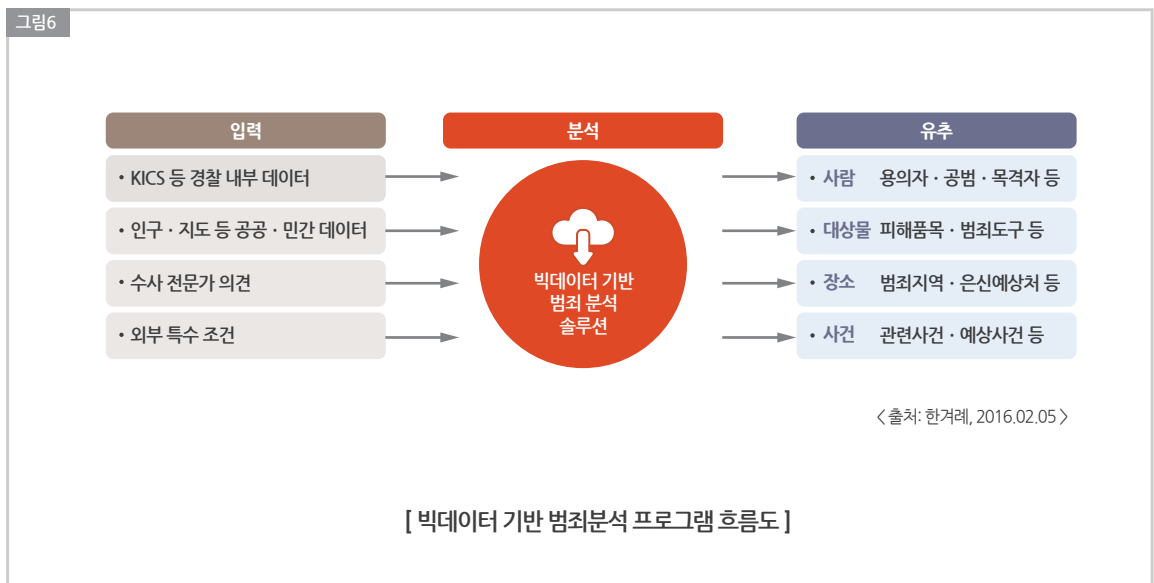


5) "Beijing wants to identify subversives before they strike", Bloomberg, 2016.03.04.

6) "SAPE: A System for Situation-Aware Public Security Evaluation", Proceedings of the Thirtieth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AAI-16)

국내 사례 - 미래 범죄 예측에 빅데이터 활용 시작

국내에서도 실질적으로 범죄 예측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15억 원을 투입하고 향후 3년간 총 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래 범죄 예측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⁷⁾ 이 프로그램은 경찰 내부의 데이터와 인터넷의 민간 데이터, 소셜 미디어의 개인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범죄 징후 및 사건 해결의 단서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범죄 용의자 및 공범의 은신처나 이동 경로 등 사건 관련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검거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을 통해 범죄 경향이나 발생 빈도 등을 파악해 범죄의 발생까지 예측하는 것은 물론 재발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잠재적 범죄자까지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 차원에서도 민간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치안 활동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 분당 경찰서는 빅데이터 업체 (주)리비와 업무협약을 맺고 빅데이터 기반의 범죄예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⁸⁾ 이 프로젝트는 (주)리비가 분당경찰서 관내 112 신고 데이터를 지역별, 시간대별, 신고 종류별로 분석해 신고가 빈번한 지역을 선정하고 경찰서는 이를 토대로 기동순찰대를 해당 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범죄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7) "경찰 '미래범죄 예측' 빅데이터 프로그램 개발", 연합뉴스TV, 2016.02.05.

8) "분당서 빅데이터 기반 둔 범죄예방 프로젝트 추진", 아주경제, 2016.07.13.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발전 방향

오늘날 테러와 강력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불안감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빅데이터 기술은 많은 연구 결과와 미디어의 보도 속에서 마치 모든 범죄를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만으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제시할 뿐 범죄율을 낮출 수 없다. 보다 많은 데이터를 결합하고 분석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보여 줄 것이고, 범죄율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그리고 경찰의 적극적인 행동 등 범죄 예측 및 예방과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지만, 범죄 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은 다른 응용 영역에서 제기됐던 것과 같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피할 수는 없다. 범죄의 예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무관한 개인 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분석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나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범죄예측에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정의하는 등의 정책 마련이 또한 요구된다.

끝으로, 국내외 사례 및 그간의 논의와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 및 글로벌 테러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의 활용에 대한 예산 및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 Appendix —

2016년 6월
사회 · 기술 · 경제 · 환경 · 정치/행정 분야 주간이슈



수락산
공사장폭발사고
로비
가습기살균제
곡성공무원
중국어선

섬마을 성폭행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경유
현충일
모의평가
조형물

끊이지 않는 근로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공사장 폭발사고'

[최근 3년간 스크린도어 장애접수 및 고장건수¹⁾]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지하철 공사 현장'등의 근로현장의 안전 사고 발생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험관리의 외주화 및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 증가

근로현장의 사고들은 주로 '재발방지대책' 또는 '안전수칙'으로 제시된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시설 미흡으로 인해 지속적인 안전사고 발생

* 지하철 스크린도어: 2인1조 작업원칙 위배²⁾

* 안전교육 및 화재감시인 배치 권고 사항 위배 및 안전시설 부재³⁾

서울시는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업무의 외주화를 직영화로 전환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전 관리 강화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월)
장 애	계	15,056	15,016	17,337	5,758
	일평균	41.25	41.14	47.50	63.98
고 장	계	2,495	2,409	2,858	797
	일평균	6.84	6.60	7.81	8.86

섬마을 성폭행 사건을 발단으로 인권교육 확대·치안협치 등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대두
교육부는 모든 도서벽지 관사에 CCTV를 설치하고,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⁵⁾, 경찰은 범죄예방진단팀을 통해 섬 지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범죄 취약요소와 시설 문제점 파악⁶⁾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의 불법 중국어선 출몰 증가

꽃게 자원 서식처를 붕괴하는 중국 쌍끌이 어선의 조업으로 연평도 꽃게 어획량이 작년 동기 대비 1/3수준으로 감소 하였으며,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의 불법 중국조업 어선을 연평도 어민이 직접 나포하며 화제 (봄어기 기준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 출몰 중국어선은 2년만에 100%증가)⁷⁾

극심한 취업난과 공시생의 투신자살... 곡성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지속적인 추모의 발길
6월 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⁸⁾, 반면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족집게능력' 화제⁹⁾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한 스타들의 '현충일 태극기 게양법' 화제

1) "서울지하철 노동자가 본 강남역 사고①|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사고가 반복되는 까닭", 매일노동뉴스, 2015.09.08

2) "스크린도어 안전 사고, 반복되는 구조적 이유는?", 머니투데이, 2016.06.02

3) "뭐하나 지킨 게 없다...총체적 안전불감 남양주 폭발사고", 연합뉴스, 2016.06.07

4) "박원순 시장, 구의역 사고 사과 "안전 업무 직영화", MBC, 2016.06.07

5) "성폭행 사건 대책으로 '인입 여교사 파견 중지'한다면 교육부, 모든 도서벽지 관사에 CCTV 설치 추진", 경향신문, 2016.06.06

6) "경찰청장 "범죄취약 섬 지역 치안실태 전수조사"(종합)", 연합뉴스, 2016.06.07

7) "분노한 연평 어민... "오죽하면 직접 중국 어선을 잡았겠나", MBN, 2016.06.06

8) "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 유명 학원강사 곧 '피의자'로 조사", 경향신문, 2016.06.03

9) "어느 학원 강사나 '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 쓸쓸한 과일", 여성경제신문, 2016.06.03



미 UCLA에서 총격사건 발생 2명 사망, 총기 소지 관련 이슈 재등장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대학(UCLA) 내 공과대학 건물 실험실에서 1일(현지시간) 오전 9시 55분 경 총격사건이 발생하여 용의자 포함 2명 사망

경찰은 피해자는 윌리엄 클룩 항공우주공학과 조교수이고, 전직 박사과정 대학원생인 용의자는 개인적인 증오심을 이유로 클룩 교수를 총격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발표

미국은 50개 주 중 8개 주만 캠퍼스 내 총기 휴대를 허용, 23개 주는 학교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나머지 19개 주는 캠퍼스 내 총기 휴대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186번째 교내 총격 사건 발생¹⁾

사건 이후 미국 내에서는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 운동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이같은 양상은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

중국의 내수소비가 지난해 호주 GDP 성장에 60% 이상 기여

지난해 중국의 내수소비는 호주 국내총생산 성장에 60% 이상을 기여했으며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은 이러한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 더불어 중국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 문제의 대응책으로 호주 식품을 선호하면서 호주 식품 관련 시장의 밝은 전망 지속 조짐²⁾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닥친 취업 · 등록금 불안³⁾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슈가 대두되면서 영국 내 EU 회원국 외국인 유학생이나 직장인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영국이 EU 탈퇴 시 이들은 더 이상 영국 학생들과 같은 조건으로 등록금을 낼 수 없으며 취업 시 비자가 필요

우리 안에 떨어진 4세 아동 구하려 멸종 위기 고릴라 사살, 과잉대응 논란과 함께 동물 보호법 이슈 등장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동물원은 고릴라 우리에 떨어진 4살 남아를 구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인 17살 고릴라 하람베를 사살했고 사고 직후 미국 전역에서는 자녀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에게 사망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었으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⁴⁾

1) "UCLA attack was the 186th campus shooting since 2013", LA Weekly, 2016.06.01

2) "Chinese consumption key for Australia", Daily Telegraph, 2016.06.02

3) "Brexit vote could cost UK universities tens of millions in student fees", The Guardian, 2016.06.03

4) "Boy's mother won't be charged over Cincinnati Zoo gorilla death", The Star, 2016.06.06

음주운전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귀어문화축제
중국어선 비자금조성 장애인
사패산 스크린도어 **섬마을 성폭행**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세월호 폭스바겐
서울메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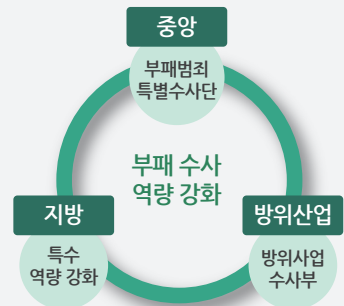
대기업 비리 관련 잇단 압수수색 진행,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출범 후 첫 수사 착수¹⁾

법무부는 2016년 1월 부패 대응 수사 체계 혁신을 위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전국 단위 대형 부정부리 사건 수사 담당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신설

최근 대기업의 비자금조성,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등이 연이어 화제인 가운데, 조선업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및 경영진의 회사 경영 비리 관련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첫 수사 착수

경영진이 사익 추구 목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 및 부정적 이익 취득이 있는지에 대해 취임 후 진행한 프로젝트 전수와 협력사 및 전현직 실무자 대상 수사 진행

[2016 법무부 '불법 비리 근절' 정책²⁾]



사패산·수락산 등 잇단 나홀로 여성 등산객 대상 사건 발생, 방법 활동 강화

등산로는 폐쇄회로TV설치 미비와 불특정 다수 방문 특성으로 범죄 발생시 장기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 치안대책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³⁾경기북부경찰청은 지역 등산로와 둘레길 방법시설 등 우범 요소를 점검하고 순찰활동 확대 및 연중 특별 방법활동 예정⁴⁾

음주운전자로 인해 인천에서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연일 화제인 음주운전에 대해 전국 일제히 단속 진행

지구대 파출소와 기동대 소속 경찰인력을 통해 전국 단위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인력 부족 농어촌 지역에서도 경찰관서 간 합동단속 등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예정이며 이후 주1회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별 불시 단속 진행⁵⁾

섬마을을 성폭행 가해자 공모, 신상 공개 요구, 피해자 대상 악성 댓글 작성 공무원 대기 발령 등 관련 이슈에 관심 집중

세월호 본격 인양 위한 배터리 작업 시작, 정상 작업 진행 시 7월 말 늦으면 8월 이후 최종 인양 시점 예상⁶⁾

1) "음, 대우조선 남상대 체제 사업 500여건 전수조사", 연합뉴스, 2016.0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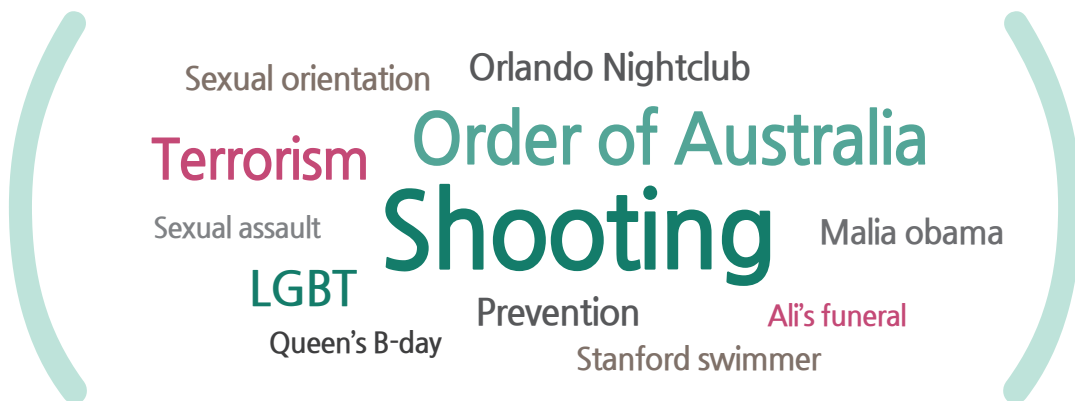
2)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 마련 -2016년 법무부 업무보고", 법무부, 2016.01.26

3) "하마터면 경기화"...자수로 숨들린 사패산·수락산 실인사건", 뉴스1, 2016.06.11

4) "사패산 여성 등산객 살해범 구속", 한겨레, 2016.06.13

5) "경찰, 14일 밤 전국 음주운전 일제 단속 나선다", 동아일보, 2016.06.13

6) "세월호 배터리 4m 들어올렸다", 경향신문, 2016.06.13



미국 올랜도 나이트클럽에서 총기난사 사건 발생으로 49명 사망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한 동성애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9명이 사망, 5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¹⁾

범인은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인 29살 오마르 마틴으로 사건 직후 IS 추종자로 의심되었으나, 조사 결과 마틴의 범행 이유가 동성애에 대한 적개심으로 밝혀지며 다음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은 이번 사건을 비난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

아울러 각 국은 이번 사건의 희생자 49명과 유가족들을 향한 애도 표시와 함께 테러리즘이 전세계 안전과 평화에 가장 심각한 위협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최근 소프트테러의 발생이 잦아진 것에 대해 문제 제기

* 소프트테러란 정부 기관이나 군 시설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을 겨냥한 테러

무하마드 알리 장례식 대신 딸 졸업식 택한 오바마 대통령²⁾

오바마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큰 딸 말리아의 고등학교 졸업식 참석을 위해 미국 유명 복서 무하마드 알리의 장례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으며, 알리의 장례식에는 최측근인 벨러리 재릿 백악관 선임고문을 보내 애도 메시지 전달 예정

호주, 국경일인 영국 여왕 생일 맞아 575명에게 국민 훈장 수여

지난 13일 호주에서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생일인 국경일을 맞아 호주국민 훈장(Order of Australia) 수훈자 575명의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명단 내에는 팝가수 케이트 세브라노 외 스포츠 스타, 원주민 지도자, 경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포함되여³⁾ 화제

만취여성 성폭행한 스탠포드 대학 수영선수 징역 6개월, 솜방망이 처벌 논란⁴⁾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인 팔로알토 소재 법원은 만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캠퍼스 내에서 성폭행한 스탠포드대 수영선수 브룩 터너(20)에게 징역 6개월,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하였으나 검찰과 지역민들이 선고 형벌이 범죄행위에 비해 가볍다고 지적하면서 비판 여론 확장

1) "Terror shooting at gay nightclub in Orlando leaves at least 49 dead, 53 wounded", Wall Street Journal, 2016.06.12

2) "Barack Obama to miss Muhammad Ali's funeral because of daughter's graduation", Telegraph, 2016.06.08

3) "Queen's Birthday Honours List", The Guardian, 2016.06.11

4) "Light sentence for Stanford swimmer in sexual assault extraordinary, legal experts say", LA Times, 2016.06.08

모의평가 원양어선
경비행기 중국어선 성폭행연예인
청년수당 김해공항 신공항 가슴기살균제
맞춤형보육 공무원시험 음주운전
대우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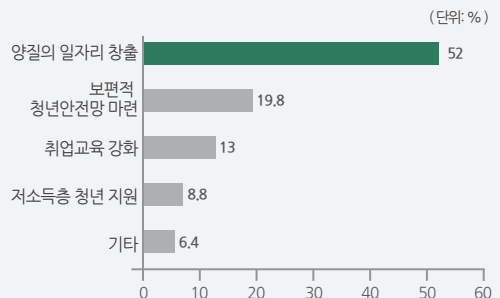
서울시, 7월부터 '청년수당' 지급... 보건복지부와의 갈등 심화

서울시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미취업자에게 활동계획서를 받고 월50만원의 활동비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7월부터 시행 예정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급여항목과 성과지표 등을 기존의 정부정책과 마찬가지로 취·창업 활동에만 수당을 지원할 것을 지적하면서 서울시와의 갈등 심화¹⁾

스위스의 경우, 기본소득보장안이 근로의욕 감소와 세금 증가 우려로 부결되었으며²⁾,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무분별한 현금지급 우려 등으로 논란 지속³⁾

[전국 20~30대 대담, 가장 긴급한 청년정책³⁾]



인도양 한국 원양어선 피살 사건 발생, 정부는 세이셸 당국에 신병 확보와 사법 절차 등 협조 요청
인도양 원양 어선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이 베트남 선원에 의해 살해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사법당국은 한국이 용의자에 대한 수사·재판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용의자가 도주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신병 확보를 위해 세이셸 당국에 현지 조사 등 협조 요청⁴⁾

수능 모의고사평가 유출 학원강사, 현직 교사에게 몇 년간 수 억원을 지급하며 모의평가 문제 구입
해당 학원강사는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 문제를 구입하고 자신의 교재에 수록하였으며 이 중에는 모의 평가 문제도 포함되어 경찰은 평가 문제 유출 교사 1명을 적발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일각에서는 실제 수능 문제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⁵⁾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민정경찰과 해경 기동전단의 연이은 나포 소식 화제

성폭행 혐의부터 음주운전까지 유명 연예인들의 연이은 윤리 의식 부재 사건 사고 이슈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맞춤형 보육제도의 시행 연기를 요구하며 집단휴업 강행 예고⁶⁾

1)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사업 강행 멈춰야", YTN, 2016.06.21

2) "스위스 '월 300만 원 보장안' 부결, 70% 이상이 반대", MBC, 2016.06.06

3) "전국 20~30대 504명 조사... 64.2% '청년수당 반대'", 문화일보, 2016.06.29

4) "원양어선 한국인 피살사건 수사-재판은 한국이... 부산해경 부산지법 담당", 경향신문, 2016.06.20

5) "모의평가 문제 유출 강사, 교사에 3억 권내", KBS, 2016.06.21

6) "민간어린이집 1만여 곳 '맞춤형 보육 강행시 23~24일 집단휴업 이어 폐업할 것'", 조선일보, 2016.06.22

Orlando tragedies

Alligator attack

Toddler killed

Sungai Besar

Gunman

Jo Cox

Disney World

Malaysian price hike

Gordie Howe's funeral

NHL Hockey

FB's suicide prevention tools

Good & Services Tax

미 올랜드 디즈니월드 리조트에서 악어에 물려간 2세 남아 사망¹⁾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드 디즈니월드 내 위치한 인공호수에서 악어가 갑자기 나타나 호숫가에서 놀던 2세 남아를 입에 물고 물 속으로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

사건 발생 당시 아버지와 누나가 아이와 근접한 곳에 있었으며 아버지는 악어의 입을 벌려 아이를 구출하려고도 했지만 실패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 경(현지시간)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경찰 수색팀은 사고 발생 지점 인근에서 훼손되지 않은 상태의 아이 시신을 발견했으며 수색 과정에서 호수에 서식 중인 악어 네 마리를 포획해 배를 갈라 아이의 시신이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

해당 인공호수에는 수영 금지 팻말만 존재하고 악어 출현 가능성에 대한 위험 경고가 없다는 점 때문에 대중의 비난 확산 예상

말레이시아 정부, 재화용역세(GST) 도입은 물가 상승과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 발표²⁾

말레이시아는 작년 4월 국가 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6%의 세금을 물리는 GST 제도 도입 이래 약 8조원의 세수를 올렸으나 GST가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거세지며 GST 폐지 요구 운동이 일어나자 정부는 GST는 물가 상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

영국 조 콕스 하원의원 피살 사건 발생, 범행 동기는 브렉시트 찬반 갈등

지난 16일 오후(현지시간)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와 브렉시트 반대를 주장해오던 조 콕스 의원이 거리에서 총격을 당한 후 수 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 범인은 52세의 수리공으로 범행 당시 반 유럽연합 운동을 전개하는 극우 단체 이름인 'Britain First'를 외친 것으로 확인³⁾

페이스북, '자살예방 툴' 서비스 보급을 통해 자살 등 사고 미연에 방지 효과 기대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SNS 친구가 자살이나 자해 가능성을 담은 게시글을 올렸을 때 게시글 오른쪽 상단의 깃발 표시 아이콘을 누르면 24시간 모니터링 전담팀이 위험도를 판단하고 당사자에게 필요한 대안이나 정보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개

1) "Alligator drags 2 year old into Disney World lagoon", Mercury News, 2016.06.15

2) "Sungai Besar Polls: Excessive spending, not GST, reason for price hike", The Star, 2016.06.15

3) "Labor MP Jo Cox dies after being shot and stabbed as husband urges people to fight against the hate that killed her", Telegraph, 2016.06.17

4) "Can Facebook help prevent suicide? Updated tools empower friends.", Christian Science Monitor, 2016.06.15

다단계사기범 세월호 총간소음
성폭행 경찰관 장애인
신공항 분식회계
제주돼지 고려아연 최저임금
어린이집 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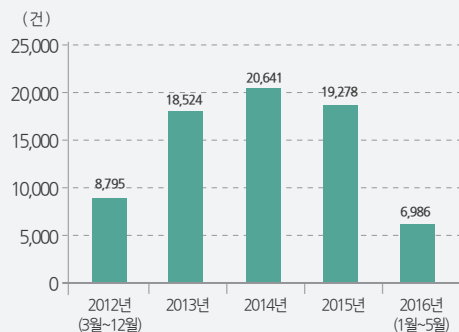
이웃사촌에서 원수지간으로... 범죄로 번지는 '총간소음' 갈등

최근 총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보복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총간소음의 원인으로는 뛰거나 걷는 소음(77.5%)과 벽이나 바닥의 충격음(10.8%) 등이 있으며, 이러한 총간소음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인 스트레스와 이웃 간 분쟁 야기¹⁾

총간소음 예방을 위해 건설사는 자체 특화설계를 적용한 아파트들을 선보이고²⁾ 정부는 환경부 산하 '총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해 이웃 간 분쟁 해결 지원³⁾

【'총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건수³⁾】



5년만에 세상에 드러난 집단성폭행사건, 경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 전원 검거

경찰은 5년전 일어난 집단성폭행사건에 대해 사건 확인 후 3년여간 수사를 진행하여 피의자 22명을 전원 검거했으며⁴⁾, 피의자 부모가 피해자를 뒤흔치는 언행에 대한 비난 확산⁵⁾

18년 만에 발생한 제주도 돼지열병으로 돼지 살처분 시행 및 발생 농가 기준 이동제한 조치

제주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약1,300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하였으며, 방역당국은 발생 농가 기준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와 주위의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검사 실시⁶⁾

고려아연 공장에서 황산 유출로 피해자 발생, 보호복 미지급 등 안전관리 미이행을 중점적으로 수사 진행⁷⁾

5조원 규모의 다단계사기범에 대한 사망 결론 확정, 피해자모임은 검찰의 결론에 대한 사망 의혹 제기⁸⁾

1) "총간소음, 이웃간 '벽'은 허물고, 총간 벽은 두껍게", 경향신문, 2016.06.29

2) "건설사를 총간소음 해소에 노력... 인기분양에 필수 요소로 자리잡아", 쿠팡뉴스, 2016.06.30

3) "범죄로 이어지는 '이웃 갈등', 경성매일뉴스, 2016.06.14

4) "제2의 일양사건 뒤흔친 '초안산 집단성폭행' 밝혀낸 해결사", 노컷뉴스, 2016.06.29

5) "'이제와서 어쩌라는 거냐'... 안하무인 집단 성폭행 부모", 매일경제, 2016.06.29

6) "18년 만에 제주도 '돼지열병'... 중국 바이러스로 추정", JTBC, 2016.6.30

7) "고려아연 안전관리 구멍... 근로자 장갑만 끼고 작업", 매일경제, 2016.06.29

8) "검찰 2년 재수사... '사기범 조희팔은 사망했다', 경향신문, 2016.06.28

Natural disaster UK tsunami Impact Journalism Day
Spark News **Abortion law in TX**
Istanbul Airport attack **Free trade**
Single market access
West Virginia flood ADF **Newspapers** Brexit fallout

임팩트 저널리즘 데이, 50개국 55개 언론사가 참여해 사회 문제 공유

프랑스 '스파크 뉴스'의 주관으로 매년 6월 25일 열리는 임팩트 저널리즘 데이(Impact Journalism Day · IJD) 프로젝트에 올해는 미국 USA투데이, 일본 아사히신문, 프랑스 르피가로, 한국 동아일보 등 세계 50개국 55개 언론사가 참여해 세계에서 일어나는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등 사회 문제들을 소개하고 해결책을 제시¹⁾

대만은 아기 울음소리 데이터를 녹음한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아기울음소리 통역 앱, 미국은 문자메시지로 소통하는 청각장애인 상담 서비스, 인도네시아는 가정 쓰레기를 건강보험료로 대체하는 보험 상품 등을 소개해 독자들에게 통찰력 증진과 관심을 유발



미 연방 대법원, 텍사스 낙태 금지법에 위헌 판결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5 대 3의 결정으로 현재 텍사스에서 시행 중인 임신 20주 이후 태아 낙태 금지와 시술 병원 제한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네브래스카, 알라바마, 위스콘신 주 등의 낙태 금지 법안 추진에 제동 예상²⁾

EU 정상들 “EU 회원국 국민들의 영국 내 자유로운 이동 보장이 없을 시 영국을 EU 단일시장에서 제외할 계획”

유럽연합(EU) 정상들은 EU 단일시장이 상품, 서비스, 사람, 돈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이 단일시장에 남으려면 네 가지 자유를 빠짐없이 모두 지켜야 하고 하나라도 행해지지 않을 경우 영국의 단일시장 접근 권한을 불허하겠다고 발표³⁾

미 웨스트 버지니아 주, 폭우로 인한 홍수 발생으로 최소 23명 사망

지난 24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주 정부는 시간당 최고 254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최소 23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구조됐다고 밝히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이번 폭우와 홍수로 인해 약 6만 6천 가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 발생⁴⁾

1) "Welcome to Impact Journalism Day", Irish Times, 2016.06.25

2) "Supreme Court strikes down texas abortion restrictions", NY Times, 2016.06.27

3) "UK single market access 'not a realistic option' without accepting EU rules, Germany warns", Independent, 2016.06.28

4) "West Virginia flood: Stormy morning turns into a nightmare", Daily Times, 2016.06.29

프라이버시 침해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카카오톡 알리바바 통신사편드
주파수공급 악성코드 특허 노벨상
자율주행 인공지능 강제종료
가상현실 테마파크 스몰셀

샤오미, 기술력과 특허권 확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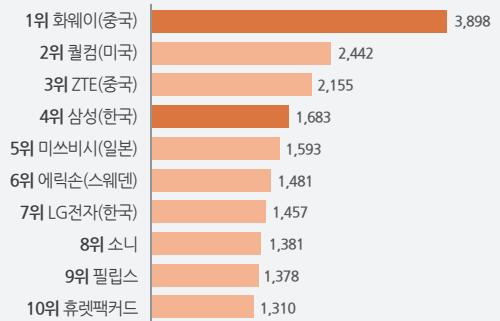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전세계 국제특허신청 건수가 지난해 대비 1.7% 증가²⁾

이 중에서도 중국기업의 특허신청이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국 메이저 기업인 화웨이(3,898건)와 ZTE(2,155건)의 특허 등록 건수가 한국 기업을 추월

최근 샤오미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특허 1,500건을 매입하면서, 글로벌 지식재산(IP) 기업의 선진기술 및 특허권 확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

[2015년 국제특허 등록 기업 순위¹⁾]

(단위: 건)



구글, 인공지능 기능을 강제 종료하는 '빅 레드 버튼(Big Red Button)' 개발 착수⁴⁾

알파고를 만든 구글 답마인드 팀은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대응책으로 인공지능이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강제로 인공지능 기능을 멈출 수 있는 '빅 레드버튼'을 통한 인공지능 통제 방안 마련

미래부, 사물인터넷 · 드론 · 자율주행차 등 ICT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주파수 공급 및 규제 완화 방안 모색

카카오톡에서 공유한 URL이 포털 검색에 노출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확산

카카오가 지난 1월부터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공유한 URL을 포털 사이트인 다음(DAUM) 웹검색에 노출시킨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확산되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착수⁵⁾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의 요금제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유료방송 요금규제 자율화 전망

1)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2) "중국, 첨단 기술 특허출원 한국보다 앞서...기술 강국으로 우뚝", IT조선, 2016.05.22

3) "다, 원자재서 첨단기술로 '사냥 타깃' 이동... 한국은 제자리", 동아일보, 2016.06.01

4) "구글, 인공지능 작동 멈추는 소름버튼 '빅 레드 버튼' 개발 중", IT조선, 2016.06.07

5) "[SNS 세상은 지금] 카카오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매일경제, 2016.0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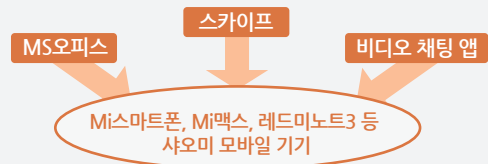


샤오미, 미국 시장 진출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특허 1,500개 인수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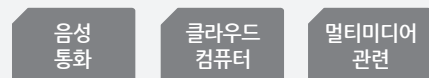
중국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제조사 샤오미가 마이크로소프트(MS) 특허 1,500개를 인수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 계획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허권의 구체적인 매각 가격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

MS가 타기업에게 특허권을 매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샤오미와 MS는 특허와 관련하여 매대 뿐만 아니라 크로스 라이선싱 협정(Patent Cross-licensing)을 맺어 샤오미의 모바일 기기 등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스카이프 설치 등의 전략을 추진

[샤오미와 MS의 특허 교차 사용 계획]



[MS가 샤오미에게 매각하는 특허권 분야]



인도 통신사들의 VoIP 앱 관련 규제 마련 요구에 망중립성 문제 재조명

인도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스카이프나 왓츠앱같은 무료 문자 또는 음성메시지 서비스 앱이 매출 발생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들을 이동통신서비스로 분류하여 관련 규제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²⁾

* 망중립성: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2003년 등장한 단어

엘론 머스크, 9년 내 인류의 화성 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³⁾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코드 컨퍼런스 2016'에서 전기차 회사 테슬라와 우주선 개발 업체 스페이스X의 CEO인 엘론 머스크는 2024년 화성으로 가는 유인 우주선을 발사해 2025년 화성에 착륙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의 트위터와 핀터레스트 계정 해킹 당해 보안 문제 관심 증가

해킹 단체 아워마인에 의해 마크 주커버그의 소셜 미디어 계정들이 해킹을 당했다고 밝혀진 가운데, 주커버그의 비밀번호는 'dadada'로 보안을 생명으로 여기는 SNS 기업의 CEO가 여러 사이트 계정의 비밀번호를 인터넷 보안에 취약한 조합 방식으로 설정해 논란⁴⁾

1) "China's Xiaomi to Buy 1,500 Patents From Microsoft", Wall Street Journal 2016.06.01
이미지 출처: <http://www.itnews.or.kr/?p=18641>

2) "Telecom companies want communication n apps to be regulated", India Times, 2016.06.06

3) "SpaceX chief Elon Musk predicts people on Mars in 9 years", Daily Mail, 2016.06.02

4) "Mark Zuckerberg's social-media accounts got hacked, and his password is terrible", Business Insider, 2016.06.06

웨어러블산업육성
텔코인프라프로젝트
정보보호 스타트업
한국형발사체
사이버테러
스마트폰성장률
앱수수료
증강현실폰
ICT수출
스마트홈

라인상장

세계 스마트폰 성장 침체 속, 성장 잠재력 지닌 '인도' 신흥시장으로 부상¹⁾

올해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은 7%로 8년 만에 한자릿수를 기록하며 성장세 둔화 (2015년 성장률은 14.4%)

성장둔화의 주원인은 스마트폰 교체주기 증가(프리미엄폰의 경우 2.5년으로 연장)와 성숙시장의 스마트폰 보급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아직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는 신흥시장으로 관심 집중

2016년 인도에서 1억 3,900만 대의 스마트폰이 판매되면서 전년 대비 29.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스마트폰 가격을 부담스러워하는 인도 시장 특성상 120달러 이하의 저가형 스마트폰이 2016년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라인 美·日 동시 상장... 아시아 편중 넘어 글로벌시장 확장 전략

네이버 라인이 내달 미국과 일본 증시에 동시 상장하고, 4개국(일본·태국·대만·인도네시아)에 편중된 기존 시장을 넘어 북미·유럽 등 해외시장 영역 확장에 나설 예정, 증시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인수합병 등의 전략적 투자에 사용할 계획²⁾

이동통신사, 스마트홈 시장 확대 위해 건설사와 협업 활발

이동통신사의 미래먹거리인 '스마트홈' 시장 확대를 위해 SK텔레콤은 현대건설, LG유플러스는 대우건설, KT는 KT에스 테이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오피스텔 등 신규 분양단지에 '스마트홈' 서비스를 공급할 예정³⁾

앱스토어·구글스토어 입점수수료 인하 정책... 국내 관련업계 희비 교차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수익 증대를 위해 애플과 구글이 앱마켓 입점수수료 인하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게임 업계는 수익 향상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⁴⁾ 국내 앱마켓 사업자인 카카오·원스토어는 수수료인하에 대한 부담 증가⁵⁾

1) "가트너,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 성장률 7% 수준 불락", 아이티데일리, 2016.06.09

2) "해외 상장 나선 네이버 라인... '4개국 편중' 극복할까", 연합뉴스포맥스, 2016.06.13

3) "[기획] 스마트홈의 진화... 'IoT 빌트인' 주택 목소리 나네", 국민일보, 2016.06.09

4) "구글-애플 수수료 인하, 게임 업계 효과는?", ZDNet Korea, 2016.06.10

5) "구글과 애플 앱마켓 입점수수료 인하, 카카오와 네이버 '부담', 비즈니스포스트, 2016.06.10



애플, WWDC 2016에서 첨단 인공지능(AI) 기술 탑재 기능 등 공개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개발자회의(WWDC) 2016'에서 애플이 공개한 차기 운영체제(OS)인 iOS10에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기능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관련 종사자 및 사용자들의 관심 증가

iOS10의 가장 큰 특징은 인공지능 시리(Siri)의 기능 향상으로 모바일 결제나 통화 중 등의 작업 도중에도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해 정보 정리와 메시지 발신 명령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중국 메신저 위챗과 우버 등 타사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도 가능

애플은 업그레이드된 시리를 자사의 모바일 기기 뿐만 아니라 맥 컴퓨터에도 탑재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증대시킬 계획

시리 외에도 긴 문장을 이모티콘으로 변경해주는 답 러닝 기술, 디지털 터치와 이펙트 기능이 추가된 문자메시지, 애플지도와 아이메시지 타사 연동, 개인 UI와 디자인이 향상된 애플지도 등을 선보여 스마트홈 플랫폼 분야에서의 우위선점 의지 노출¹⁾

테슬라, 에너지 저장장치에 삼성SDI 배터리 사용 계획²⁾에 대한 입장 표명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8일 오후(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삼성SDI 배터리의 자사 전기차 모델 공급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전기차 배터리는 파나소닉과 독점 협력 중이지만 가정 · 산업용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삼성SDI 배터리 도입 계획임을 언급

애플에 이어 아마존도 올 여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출시

아마존이 기존의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월 10.99달러 또는 연 99달러) 내 다양한 제공 서비스 중 하나였던 음악 서비스를 올 여름부터 월 9.99달러에 단독 상품화하겠다고 발표해 미국 음악 스트리밍 시장 강자인 스포티파이와 애플뮤직과의 경쟁 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³⁾

미국 LA에서 세계 최대 게임 엑스포인 'E3' 3일간 진행, 가장 큰 화두는 가상현실(VR)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E3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 말 출시 목표로 제작 중인 VR 콘솔 게임기 스코피오를 공개, 소니는 한 달 앞선 올 10월 '플레이스테이션 VR' 출시를 밝히며 VR 게임 50여 종을 공개 시연해 가상현실 게임 상용화 경쟁 본격화⁴⁾

¹⁾ "WWDC 2016: Key points at a glance from Apple's conference", The Guardian, 2016.06.13

²⁾ "Tesla CEO says may source Samsung battery for energy storage products", New York Times, 2106.06.08

³⁾ "Exclusive: Amazon is preparing to launch streaming music service - sources", Reuters, 2016.06.10

⁴⁾ "Why Microsoft didn't beat Sony at this year's E3", Forbes, 2016.06.16

리튬이온배터리 스토리펀딩
지원금상한제 자율주행차
 아이폰6 중판매중단 **조이언트** 해저케이블
 텐센트-슈퍼셀 **생체인식**
 PP프로그램사용료 **잇힐권리**
 모기쫓는TV

다양한 생체정보를 활용한 생체인식기술 도입 확산

초기 생체인식시장은 지문인식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생체정보를 이용한 생체인식기술이 확산되는 추세¹⁾

LG유플러스는 핸드폰 유심에 개인생체정보를 저장해 온라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생체인증 플랫폼을 다가오는 8월에 출시하고, 향후 홍채 · 음성 · 필체 · 걸음걸이 등으로 인증방식을 다양화할 예정²⁾

뛰어난 보안성을 지닌 생체인식기술도 생체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은 존재하므로, 생체정보 위 · 변조 탐지기술과 생체정보의 자유로운 폐기를 위한 생체정보 변형기술을 적용해야 하며, 생체정보 유출 시 프라이버시침해를 막기 위한 생체정보보호 법제도 마련도 필요¹⁾

[생체인식기술별 특징¹⁾]

구분	특징
신체적 특징	지문 - 전용센서로 지문의 디지털영상을 획득하여 사용자 인식 - 인식 오류는 적으나, 지문이 손상된 경우 적용 불가
	얼굴 - 얼굴 영상을 분석하여 사용자 인식 - 비접촉 방식으로 사용자 거부감이 적음 - 주변환경 · 영상 각도에 민감하고, 성형수술이나 노화에 한계
	홍채 - 눈의 홍채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식 - 복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인식률이 매우 높음 -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높음
행동적 특징	음성 - 음성에서 추출한 독특한 특성을 이용하여 사용자 인식 - 주변 잡음이나 인식 대상의 어휘 제한에 한계
	걸음걸이 - 걸음걸이의 특성을 분석하여 사용자 인식 - 他인식기술 대비 장거리에서 등록 및 인증 가능 - 외부 영향을 많이 받으며, 소형화하기 어려움

삼성전자 '조이언트' 인수... 증가하는 클라우드 수요 대응

삼성전자는 미국 클라우드업체인 조이언트社 인수를 통해 자체 인프라 · 운영노하우 · 전문인력 확보와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스마트폰 · 사물인터넷 등 증가하는 클라우드 수요에 대응 예정³⁾

집단지성형 게시판 · 쇼핑몰 상품평도 '잇힐 권리' 적용... 이달 중 순차적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판 잇힐 권리인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집단지성형 게시판과 쇼핑몰 상품평에도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이달 중 사업자별로 시행 예정⁴⁾

1분만에 충전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 개발...1년내 상용화 가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팀은 1만번 이상 충전해도 수명이 저하되지 않고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130mAh 용량의 경우 1분 소요)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 소재를 개발하였으며, 1년 내 상용화 가능할 것으로 예상⁵⁾

1) "ICT와 생물학의 융합, 생체인식 기술 동향", KOTRA, 2016.06.17

2) "LG유플러스 '휴대폰으로 생체인증 서비스'", 한국경제, 2016.06.15

3) "삼성전자,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조이언트 인수", 아이티데일리, 2016.06.17

4) "네이버 지식N 글도 '잇힐 권리' 대상에 포함", 중앙일보, 2016.06.21

5) "20초 만에 스마트폰 완충하는 기술 개발", 동아사이언스, 2016.06.20



파리 테러 유족, 구글·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 소송 제기¹⁾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로 인해 딸을 잃은 레이날도 곤잘레스는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화제

곤잘레스 측은 세 회사가 파리 테러의 범인인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조직원 모집, 자금 조달, 선전 활동 등을 벌이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동영상 또는 글에 광고를 붙여 수익을 냈으므로 테러 사건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소셜 미디어 회사들은 테러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으며 실제로 지난 14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CEO도 테러 희생자들을 위한 위로 방송을 시작했으나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

최근 페이스북을 비롯한 여러 소셜 미디어가 제공하는 라이브 방송 기능을 관심이나 이목을 끌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생중계 하는 데에 사용하는 등 범죄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

아인슈타인이 1세기 전 주장한 중력파... 지난 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탐지 성공

라이고(LIGO) 과학협력단과 비르고(Virgo) 협력단은 지난해 말 미국 리빙스턴과 핸포드에 위치한 쌍둥이 중력파 검출기 라이고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분석해 태양 질량의 14배와 8배인 두 블랙홀이 충돌 후 하나의 블랙홀이 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중력파를 탐지했다고 발표²⁾

인도, 20개 위성을 탑재한 '로켓 PSLV C34' 발사

지난 22일 오전(현지시간) 인도우주연구기구(ISRO)는 사티시 다완 우주센터에서 20개의 위성을 탑재한 '로켓 PSLV C34' 로켓을 발사했고 모든 위성을 예정 궤도에 순조롭게 안착시켰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발사는 인도가 한번에 쏘아 올린 위성 수로는 최고 기록³⁾

중국,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 가능한 품목들 규정해 수출 금지 결정⁴⁾

중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 군용 무기 생산에 쓰일 수 있는 물질을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 후 공식 발표를 통해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UNSC)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의 목적을 가진다고 언급

¹⁾ "Father of Paris attacks victim sues social media companies", Miami Herald, 2016.06.16

²⁾ "Einstein's gravitational waves detected for the second time", Economic Times, 2016.06.16

³⁾ "ISRO to launch record 20 satellites on June 22 in a single mission", India Times, 2016.06.22

⁴⁾ "China bans exports to N. Korea with possible military use", Washington Times, 2016.06.15

자율주행차 제4차산업혁명포럼
MWC상하이 팬택 지원금상한제
5G 무선통신기술 3D 그래픽 스마트폰
클라우드 AI홈서비스 사이버공격대응
지상파 UHD 방송표준

‘AI 홈비서’ 시장, 글로벌 IT공룡들의 새로운 격전지로 부상

2014년 아마존이 인공지능 ‘알렉사’를 탑재한 음성인식스피커 ‘에코’를 출시한 이후 구글은 ‘구글 어시스턴트’ 기반 AIS피커 ‘구글 홈’을, 애플은 스마트홈 앱 ‘홈(Home)’을 잇따라 공개하며 AI 홈비서 시장에서 글로벌 IT기업간 경쟁 심화¹⁾

* AI 홈비서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사용자가 기기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확인하거나 집안의 각종 전자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네이버는 인공지능 기반 대화 시스템인 ‘라온(LAON)’ 출시를 예고하고 높은 한국어 음성 인식률(95%)과 언어 간 번역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외 AI 홈비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²⁾

AI 홈비서 서비스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용 비서, 스마트워크용 비서 등에 응용되어 기술진화가 빠르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¹⁾

[글로벌 IT업체들 ‘AI 홈비서’ 현황]

구분	특징	특징	특징
AI비서 솔루션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시리(Siri)
디바이스	에코 (2014)	구글홈 (2016)	미정
주요기능	가정 내 기기 작동, 검색, 음악 스트리밍, 배달 주문 등 사람의 명령 수행		
확대방법	서드파티에 개발자 키트 공개	스마트폰 점유율 기반으로 시장 확대	개발자들에게 문호 확대

아시아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상하이 2016’ 개막… 화두는 5G · 가상현실(VR) · 드론
‘MWC 상하이 2016’에는 세계 각국의 IT기업들이 참가해 드론, 가상현실(VR), 웨어러블, 사물인터넷(IoT), 5G 등 차세대 기술을 소개하며, 한국에서는 KT와 SKT가 참가해 5G 기술을 시연하는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우수 스타트업의 제품 홍보 공간 마련³⁾

* MWC 상하이(Mobile World Congress Shanghai)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아시아 시장 확장에 발맞춰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 박람회

5G 기지국 · 단말기 소형화를 위한 초소형 5G통신 안테나 개발… 차세대 통신기술 상용화 기대
삼성전자는 기기 케이스에 안테나의 일부 기능을 증착하는 기술을 적용해 두께 1mm이하 5G용 초소형 안테나를 개발했으며, 기존 5G 기지국과 단말기는 다소 큰 크기로 인해 소형기기에 적용이 어려웠으나 이번 기술 개발로 제품 소형화와 5G통신 상용화를 앞당길 전망⁴⁾

팬택 · 소니 국내 스마트폰 시장 컴백…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 점화⁵⁾

테슬라의 자율주행자동차 첫 사망사고 발생…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예비조사 착수⁶⁾

1) “음악 듣고 메시지 보내고...더 똑똑해진 ‘AI 홈비서’”, 머니투데이, 2016.06.27
2) “네이버도 연내 ‘AI비서’ 출시한다”, 파이낸셜뉴스, 2016.06.28
3) “% 최대 ICT박람회 MWC 상하이 개막... 5G기술 경쟁 치열”, 연합뉴스, 2016.06.29
4) “삼성전자, 5G 기지국·단말기 소형화 위한 무선통신기술 개발”, 아시아경제, 2016.06.29
5) “포화된 폰시장... 승부수 던진 팬택&소니”, 스포츠동아, 2016.06.30
6) “테슬라 모델 S 자율주행 중 사망사고... 하안색 트레일러 인식 못해”, 머니위크, 2016.07.01



중국의 두 번째 우주정거장 텐궁 2호, 9월 중 발사 예정¹⁾

중국의 실험용 우주정거장 텐궁 2호가 오는 9월에 발사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현지 언론을 통해 밝혀지며 세간의 관심 형성

텐궁 2호는 주취안에 위치한 위성발사기지 유인우주발사장에서 발사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며, 발사 이후에는 궤도에 머무르면서 우주선 도킹과 우주비행사 중기간 체류 및 우주정거장 공정 관련 실험 등의 임무를 맡아 수행할 계획

텐궁 2호는 선저우 11호 유인우주선보다 먼저 발사되어 궤도 상에 머물면서 선저우 11호를 기다리게 될 것이고 우주선에 탑승할 우주비행사들은 현재 훈련 중인 상태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신흥 우주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다각적 실험발사를 통해 2020년까지 화성에 독자적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

중국 정부, 앱 실명 등록제 등 인터넷 규제 강화 방침 발표

중국 정부는 8월부터 400만 개 이상에 달하는 중국 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이용자에게 실명 등록 절차를 밟게 하고 앱 공급자에게는 이용자 실명과 이용 내용을 리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으나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 제한과 관련된 논란 점화²⁾

에어비앤비, 샌프란시스코 시 상대로 소송 제기

미국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Airbnb)는 최근 샌프란시스코 시가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을 시에 의무 등록하게 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통신품위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시 당국은 단순 세금 징수 용이화 목적의 법안이라고 주장³⁾

구글 글래스 활용한 상대방의 감정 감지 및 표정 인식 기술 개발... 자폐 아동의 의사소통 개선에 도움 제공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은 상대의 감정이나 표정을 읽는 것에 서툰 자폐 아동을 위해 구글 글래스용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며, 글래스 착용 시 오른쪽 눈 상단에 '행복', '슬픔'같은 단어나 이모티콘을 보이게 하여 아이의 의사소통 개선과 사회성 증진을 도모⁴⁾

1) "China on schedule for launch this year of 2nd space station", Herald Courier, 2016.06.26

2) "China replaces top internet regulator and censor with deputy", AP, 2016.06.29

3) "Airbnb sues San Francisco to avoid fines for unregistered hosts", Forbes, 2016.06.28

4) "Can Google glass help autistic children read faces?", Top Tech News, 2016.06.26

원샷법 인구증가율
삼성SDS 물류분할검토 한미재무장관회의
OECD 은행 부실채권
자구안 승인 현대상선 소비자물가
대출정보공유 성과연봉제 해외자원개발
산유량 합의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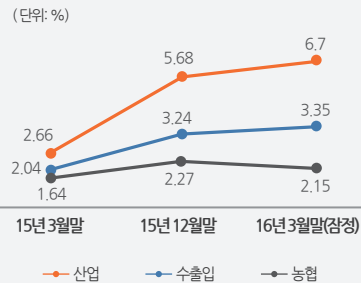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은행 부실채권 급증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은행권 부실채권은 31.3조원(지난 3월 기준)으로 1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여신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은 부실채권비율이 6.7%까지 급증

* 부실채권 :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회수가 불확실한 돈으로, 자산건전성에 따른 5가지 분류(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중 '고정 이하' 여신을 지칭

정부는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현재 정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일부 조선·해운 여신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될 경우 은행에서 추가로 적립해야하는 충당금은 수조원에 이를 전망이다¹⁾

[특수은행 3곳 부실채원 비율 추이¹⁾]



한국의 수출 증가율, 1년만에 OECD 4위에서 20위권으로 추락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OECD 회원 31개국 중 23위로 추락하면서 신규 수출산업 육성과 수출외교 강화 등의 필요성 강조⁴⁾

현대상선 8,043억원 재무조정 성공, 현대·삼성중 자구안 잠정 승인

현대상선은 8,043억원의 재무재조정에 성공하며 용선료인하 협상 및 해운동맹 가입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각각 3.5조원과 1.5조원 규모의 자구안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잠정 승인받아 본격 구조조정에 돌입

올해 들어 매달 9% 넘게 상승하던 소비자물가, 6달만에 다시 0%대로 안정화 추세

한전 등 산업부 산하 27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완료... 민간 등 전체 금융권 확산 언급

1) "금융질라잡이 구조조정에 은행 부실채권 급증", 한국금융신문, 2016.06.06
 2) "은행권 부실채권 포비아②" "충당금 폭탄...은행 2분기 실적 빨간불", 헤럴드경제, 2016.06.07
 3) "OECD, 올해 성장률 2.7% 유지...재정확대·금리인하 필요", 뉴시스, 2016.06.01
 4) "한국 수출 증가율, 1년 만에 OECD 4위에서 20위권 밖으로 추락", 뉴데일리경제, 2016.06.06



포브스 '2016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 발표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는 "The World's 100 Most Powerful Women 2016"을 발표

1위는 6년 연속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로, 포브스는 메르켈 총리를 유럽연합 내 경제적 위협을 견뎌낼 수 있으며 그리스와 스페인, 독일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들까지 잘 아우르고 있다고 평가¹⁾

2위는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으로 포브스는 처음 이 리스트를 발표한 2005년 이후 대만, 미얀마, 네팔, 크로아티아 등에서 대통령이나 국가수반이 된 여성이 등장하면서 여성 지도자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

제넷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멜린다 게이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트 부인, 메리 베라 제너럴모터스 최고경영자가 3~5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12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98위를 차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우버(Uber)에 35억 달러 투자²⁾

세계 최대 차량 공유 모바일 서비스 업체 우버는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기금(PIF)으로부터 스타트업 단일 투자 규모 역대 최고 수준인 35억 달러를 유치, 투자 배경으로는 원유에 의존하는 경제 체질 변경을 추진 중인 사우디와 여성 운전이 불법인 국가 특성을 지목

인도 총리, 취임 2년에 네 번째 미국 방문

지난 7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진행³⁾, 이번 회담의 핵심 안건은 인도의 원자력공급그룹(NSG) 신규 회원 가입 건으로 알려졌다며 미국은 일본과 함께 인도 가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

소프트뱅크 130조 부채 청산 위해 지분 매각 확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약 79억 달러 가치의 알리바바 지분 매각에 이어 일본 게임기업인 겐코온라인의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7,950억 원을 확보할 예정⁴⁾, 소프트뱅크의 130조 부채 중 상당 부분은 2013년 미국 통신사 스프린트를 무리하게 인수하면서 발생

1) "The World's Most Powerful Women In 2016", Forbes, 2016.06.06

2) "Saudi wealth fund takes \$3.5bn Uber stake", Financial Times, 2016.06.01

3) "Indian Prime Minister Modi visits US to consolidate closer ties", USA TODAY, 2016.06.06

4) "Softbank to sell most of its GungHo stake", Wall Street Journal, 2016.06.05

해운사합병
자본확충펀드
전산통합
한진해운
호텔롯데상장철회
현대상선
금리인하
대기업집단
경제성장률
용선료협상
국제통화기금(IMF)
2금융권수신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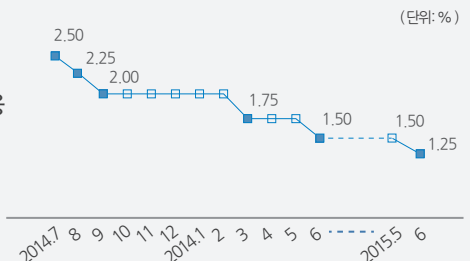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1.25%로 인하 '역대 최저'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³⁾]

한국은행은 하반기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

韓·美 금리차가 0.75~1.0%로 근접됨에 따라 국내 외기자본유출 및 금융 불안정성이 확대되었으며¹⁾, 시중은행의 수신금리인하에 따라 대출 부담이 낮아져 가계부채 심화 예상²⁾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유동성 공급 및 회사채시장 안정화를 위해 하반기 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존재³⁾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우려에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대... 현실화되면 한국 수출부진 심화 예상⁴⁾

현대상선 용선료협상 타결, 정부 현대상선-한진해운 정상화되면 합병 검토 가능

현대상선은 용선료협상을 통해 전체 용선료의 21%에 달하는 5,300억원을 절감하게 되며, 한진해운은 전체 용선료의 30% 인하를 목표로 용선료협상에 돌입, 양대 해운사가 정상화되면 합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 발언에 따라 현대상선-한진해운 합병론 재점화⁵⁾

국책은행 11조 자본확충펀드 조성... 2017년까지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

국책은행 자본확충협의체는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이 담보대출로 10조원을 출자하고 정부가 후순위대출로 1조원을 출자하여 총 11조원 규모 자본확충펀드를 조성기로 확정하였으며, 필요시마다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 예정

대기업집단기준 자산 '5조→10조'로 상향 입법예고

정부의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조정(5조→10조원)으로 중견그룹 25개(카카오·셀트리온·한진중·한솔·현대산업개발 등)가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되며, 일부 기업은 기업합력제고법(원샷법)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재편 가능성 확대⁶⁾

1) '금리인하로 국민 부담만 늘어나나' ② 통화정책 여력 소진 국제금융시장 불안 대비할 '안전판' 미리 뿔었나, 내일신문, 2016.06.15

2) '금리인하로 국민 부담만 늘어나나' ①가계부채 시한폭탄 '핵심해결', 내일신문, 2016.06.14

3) '국제금리 연일 최저치 경신... 추가 금리인하 걸리는 시장, 가능성은?', 조선일보, 2016.06.14

4) '브렉시트 현실화되면 한국경제 충격 불가피', 머니투데이, 2016.06.14

5) '일중률 "양대 해운사 정상화 후 합병 검토"', 서울신문, 2016.06.13

6) '중견그룹 25곳 사업재편 탄력...한진중·한솔 등 원샷법 적용가능', 매일경제, 2016.0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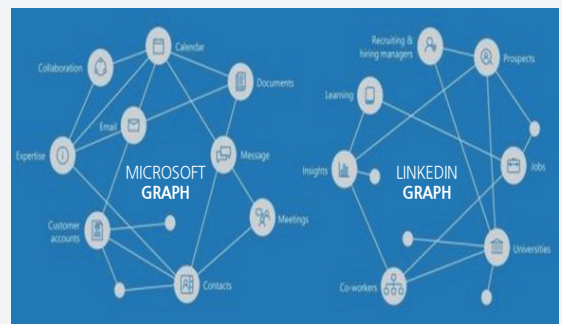
마이크로소프트, 262억 달러에 링크드인 인수 발표¹⁾

마이크로소프트(MS)는 13일 커리어 기반 SNS인 링크드인을 262억 달러(한화 약 31조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인수자금은 모두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 예정¹⁾

MS는 두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산을 비교 분석하여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다양한 시너지 창출 기대

또한, 다양한 ICT 플랫폼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MS와 세계 최대 규모 전문가 네트워크를 가진 링크드인의 결합으로 약 3천 150억 달러의 잠재적 시장 확보 전망

[마이크로소프트와 링크드인의 그래프 자산 비교²⁾]



세계은행, 올해의 세계 경제 성장률 예상치 2.4%로 하향 조정³⁾

세계은행은 '2016년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지난 1월 발표했던 2.9%보다 0.5% 낮은 2.4%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과 미국의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도 낮아졌지만 중국은 올해와 내년 모두 변동 없이 6%대 유지

인도 상원 선거 실시, 여권 승리 불구 의석 수는 전체의 3분의 1 수준⁴⁾

지난 11일 인도 상원(Rajya Sabha) 선거가 실시되어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6석이 늘어난 55석을 확보하였지만 BJP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여권인 국민민주연합(NDA)의 의석은 최대 74석으로 과반인 123석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

랄프로렌, 50개 점포 정리 · 1,000명 인력 축소 등 구조조정 강화

미국 패션 브랜드 랄프로렌은 최근 3년간 SPA 브랜드와의 경쟁에 밀리며 22% 넘게 순이익이 급감하는 등의 실적부진을 해소하고자 점포 정리와 정규직 전체의 8%에 해당하는 약 1,000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2017년 내 2억 2천만 달러의 비용 감축 계획⁵⁾

1) "Microsoft buys LinkedIn for \$26.2 billion, reasserting its muscle", New York Times, 2016.06.14

2) "Why Microsoft just bought linkedin: It's all about the data", ZDNet, 2016.06.13

3) "World Bank cuts 2016 Global Growth Forecast to 2.4%", Bloomberg, 2016.06.08

4) "BJP sweeps all 4 Rajya Sabha seats in Rajasthan, Congress-backed nominee loses", India Times, 2016.06.11

5) "Ralph Lauren is closing stores and cutting jobs as sales slump", Daily Mail, 2016.06.07

유류할증료 한·콜롬비아FTA 한진해운
 김영란법 부동산과열 MSCI선진지수
 오리온-농협 브렉시트우려 주택연금
 국가철도망 LG이노텍 재정보강

한국증시, MSCI 선진지수 편입 실패

한국증시는 올해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 등재에 실패하며 현재의 신흥지수에 잔류

* MSCI지수란 글로벌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지표로 선진지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야 추후 선진지수로 편입될 수 있음

정부는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주식·외환시장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하는 등 MSCI 요구를 일부 수용하였으나¹⁾, 원화 역외거래 허용 불가·시세정보 사용문제 미해결 등의 이유로 선진지수 관찰대상 등재에 실패²⁾

원화 역외거래를 허용할 경우 외환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역외 환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단기간 내 선진지수 편입은 어려운 전망, 이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한국시장의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³⁾

[MSCI 지수별 시장 구분²⁾]

	선진시장	신흥시장	개척시장
편입국가	미국·일본 등 23개국	한국·대만 등 23개국	베트남·케냐 등 23개국
시장 접근성 조건	1) 외국인 투자	매우 개방	상당부분 개방
	2) 자금 유출입	매우 용이	상당부분 용이
	3) 증시 운영	매우 효율적	양호
	4) 제도 안정성	매우 높음	보통

브렉시트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잇달아... 아시아국가 GDP 0.2% 하락, 파운드화 15% 급락

브렉시트 찬반 투표를 앞두고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브렉시트가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아시아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0.2% 하락할 것으로 보도하였으며⁴⁾ 투자전문가 조지 소르소는 파운드화가 15% 이상 급락할 것이라며 브렉시트에 대해 경고⁵⁾, OECD 역시 영국의 EU 탈퇴는 글로벌경제에 ‘마이너스’라고 전망함에 따라 글로벌금융에 대한 불안 확산⁶⁾

부동산 과열 현상... 금리인하 인한 부동산자금 유입⁷⁾

국책은행 자본확충협의체는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이 담보대출로 10조원을 출자하고 정부가 후순위대출로 1조원을 출자하여 총 11조원 규모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확정하였으며, 필요시마다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 예정

한국경제연구원, 김영란법 시행 시 연11조 6,000억원의 손실 추정...피해경감을 위한 보완책 마련 필요⁸⁾

국가철도망 구축에 ‘70조’ 투입... 고속·준고속 철도서비스 전국 확대⁹⁾

정부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시속 200km 이상의 고속·준고속 철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2025년에는 전국을 2시간대 권역으로 만들 계획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1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1) "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중 신흥지수 편입도 유보", 세계일보, 2016.06.15

2) "한국, MSCI 선진지수 후보군 또 탈락 왜?", 국민일보, 2016.06.15

3) "한국, MSCI 선진지수 편입 또 실패", 동아일보, 2016.06.16

4) "[브렉시트 2016] '아시아 경제 영향 제한적...GDP 0.2% 축소'", 조선일보, 2016.0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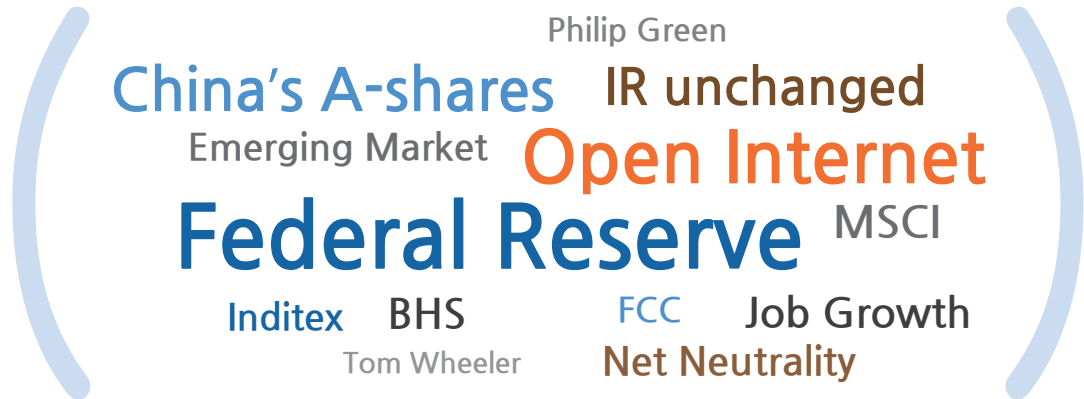
5) "‘브렉시트’ EU탈퇴 때 파운드화 15% 급락...조지 소르소의 경고", 헤럴드경제, 2016.06.21

6) "OECD '글로벌 경제에 마이너스'", 문화일보, 2016.06.21

7) "최고 9천대 1"...부동산 이상 과열", KBS, 2016.06.20

8) "김영란법, 예정대로 시행 될 경제적 손실 연 11조6000억", 중앙일보, 2016.06.20

9) "서울에서 일산까지 13분...70조 투입 국가철도망, 수도권 30분권역 실현하나", 동아일보, 2016.06.18



MSCI, 중국 A주 편입 3번째 유보로 신흥 시장에 안도감 형성 전망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주가지수 산출 전문 자회사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연례 시장 분류 점검 결과로 중국 본토의 상장 주식인 A주의 MSCI 신흥시장(EM) 지수 편입이 유보되었음을 발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지난 해 여름 주가 폭락 당시 논란이 되었던 주식 거래 중단 제도를 중국 당국이 대폭 강화한 사건 탓에 이번에는 중국 A주가 MSCI 지수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2014년, 2015년에 이어 세 번째 편입 불발¹⁾

MSCI는 편입 유보 이유로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자본 이동 제한, 투자 한도 배분 등의 요소들을 언급

중국 A주의 MSCI EM 지수 편입 유보는 최근 반등 추진력 부재를 보인 중국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지만 한국, 대만, 인도 등이 포함된 신흥 시장에는 안도감을 줄 것으로 예상

미 연방항소법원, '망중립성 원칙' 합법으로 판결하며 광대역 통신망 공공시설로 인정

미국 항소법원은 AT&T 등 통신 사업자들이 미 정부와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낸 '열린 인터넷 명령 (Open Internet Order)' 무효 소송을 기각해 오바마 정부의 망중립성 원칙을 합법으로 인정했으며, 이번 판결에 따라 해당 통신 사업자들의 입지 축소 예상²⁾

고용시장 불황과 브렉시트 우려 등으로 인해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³⁾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올해 네 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현 기준금리인 0.25~0.50%를 유지하기로 확정했고,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 낮은 고용시장 개선 속도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한 우려를 지목

영국 연금 규제당국, 자금난으로 인한 파산보호 절차 진행 중인 BHS 백화점의 파산관리인 추가 선정 속⁴⁾

영국 연금보호기금(PPF) 규제 당국은 지난 4월 영국 백화점 BHS의 파산관리인으로 임명된 더프&펠프스가 BHS의 소유주 필립 그린의 지시 아래 부정 거래를 해왔다고 판단하고 파산관리인 추가 선정을 고려 중이지만 양측 모두 혐의를 일절 부인하고 있는 상황

* 연금보호기금(Pension Protection Fund)이란 기업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영국의 국민연금보험 분야 사회보장제도의 일종

1) "Why China failed in its third try to join the MSCI club", South China Morning Post, 2016.06.15
 2) "Federal appeals court upholds net neutrality rules on equal internet access", Chicago Tribune, 2016.06.15
 3) "Slow job growth, Brexit vote make Federal Reserve cautious about hiking interest rate", LA Times, 2016.06.15
 4) "Pension fund wants second administrator to be appointed to BHS", The Guardian, 2016.06.22

중금리대출
사이드카
중도금대출 금값
하반기경제정책
FTA
브렉시트
현대상선
추경편성
특별고용지원업종
유로스톡스50
환율하락

브렉시트 충격에 금융시장 출렁... 빠르게 안정 되찾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여전

브렉시트가 결정된 24일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제히 급락해 하루 동안 전 세계 증시에서 시가총액 2조 5,400억 달러 증발¹⁾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파운드화와 신흥국 화폐 가치는 떨어진 반면 엔화와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국채와 금 투자 급증

한국은 영국과 교역규모가 크지 않아(전체 교역의 1.4%, 외국인 투자액의 1.2% 수준) 브렉시트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선제적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영국과 별도 FTA 체결을 검토하는 등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 불안정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²⁾

브렉시트 이후 1주일, 국내 금융시장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³⁾

브렉시트 현실화로 코스닥지수 급락... 올해 두 번째 사이드카 발동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가 진행된 24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대거 이탈이 발생했으며, 코스피 선물가격과 현물지수가 각각 전일대비 6.52%, 6.60% 급락하여 사이드카(12시 50분부터 5분간) 발동³⁾

*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지수 선물 가격이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 현물 가격이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강화...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1인당 최대 6억원까지 보증⁴⁾

정부는 7월 1일부터 과열된 분양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1인당 2건, 보증금액 한도를 최대 6억원(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하는 집단대출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투기성 수요는 줄어들고 실수요자는 9억원 이하의 청약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조선 대기업 3사는 제외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향후 1년 간 조선업체와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형 3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⁵⁾

현대상선, '디얼라이언스' 대신 최대규모 해운동맹 '2M' 가입 협의 진행⁶⁾

1) "브렉시트 하루만에 세계 증시서 한국 GDP 2배 '증발'", 한국일보, 2016.06.26
2) "브렉시트 추경 편성·FTA 추진 등 불안 잠재우기... 금융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듯", 전자신문 2016.06.26
3) "브렉시트 후폭풍" 국내 증시 패닉, 코스피지수 장중 1900선 내림...코스닥 사이드카 발동", 조선비즈, 2016.06.24
4) 9억원 넘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봉쇄...분양 과열 '물끄러', 한겨레, 2016.06.28
5)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파업 예고 대기업 3사 제외", SBS뉴스, 2016.06.30
6) "해운동맹 새국면]현대상선, '디 얼라이언스'에서 '2M' 급선회 배경은", 아시아경제, 2016.06.23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개표 결과 탈퇴 51.9%, 잔류 48.1%로 집계

지난 23일(현지시간) 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국의 유럽연합(EU) 잔류·탈퇴 선택을 묻는 국민투표가 치러졌으며 개표 결과 전체 유권자 4천 650만 명 중 72.2%가 투표권을 행사했고 1천 741만 명이 EU 탈퇴, 1천 614만 명이 EU 잔류를 선택

투표 당일 영국의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했던 사전 조사 결과인 EU 잔류 52%, EU 탈퇴 48%와는 상반된 결과로, 이번 투표 결과로 인해 영국은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 이후 43년 만에 EU 이탈을 선언하고 향후 2년간 탈퇴 협상을 진행

영국 국민들이 EU 탈퇴를 선택한 이유로는 이민 억제와 국민의 주권과 통제권 되찾기가 꼽히지만 EU 탈퇴로 인해 2년 이내 일자리 50만 개 소멸 국내총생산 3.6% 위축, 국가 신용등급 하락, 영국 거주 EU 국적 외국인 문제 등의 심각한 부작용 우려¹⁾

국민투표 결과 발표 이틀 만에 브렉시트 재투표 청원서에 111만 명이 넘게 서명했으나 재투표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상

이틀 일정으로 인도 뉴델리 방문한 김용 세계은행 총재

지난 28일(현지시간)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아룬 제이틀리 재무장관을 만나 인도가 "세계 극빈층의 26%가 살고 있으면서도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인 점을 언급하며 막강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국가라고 평가²⁾

폭스바겐 그룹, '디젤게이트' 관련 153억 달러 규모 미국 보상안에 최종 동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켰던 폭스바겐 사는 총 153억 3,300만 달러(약 17조 7,755억 원)의 미국 보상안을 발표하고 이 중 100억 3천만 달러는 문제 차량 재매입과 차주 보상금으로, 20억 달러는 향후 10년간 친환경기술 개발 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확정³⁾

도요타, 에어백 결함 문제로 전세계 하이브리드차 143만 대 리콜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판매한 프리우스, 렉서스 CT200h 등 하이브리드차 143만 대의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리콜 사유는 에어백 팽창기의 접합부에 미세한 균열 발생 가능성 결함인 것으로 판명⁴⁾

1) "After Brexit vote, a choice for Europe: Move forward, or fall back", NY Times, 2016.06.27

2) "World Bank President Jim Yong Kim visit India", Economic Times, 2016.06.27

3) "Volkswagen agrees to landmark \$15.3-billion emissions settlement in U.S.", The Star, 2016.06.28

4) "Toyota recalling 1.43 million hybrids worldwide for air bag issue", NY Times, 2016.06.28

환경의날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미세먼지
환경범죄
더위
배출가스조작
친환경
고등어
경유
녹조
화력발전소
수소전기차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확정 발표¹⁾

환경부는 국무총리를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의 차관회의 등을 거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확정 발표

정부는 오염기여도와 비용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 부문의 국내 주요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 추진

대표적으로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20년 신차의 30%), 경유차의 배기 가스 관리 강화, 경유버스의 단계적 대체, 석탄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

[부문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방안]

부문	대상 및 추진내용
수송	-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 - 친환경차 보급 확대 -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 건설기계 등 비도로 오염원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 추진
발전·산업	- 석탄발전소의 친환경적 처리 및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성능개선 추진 - 공장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생활주변	- 도로먼지 청소차 보급 - 건설공사장 자발적협약 체결 및 현장 관리점검 -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및 생물성연소 실태조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주요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강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11개 전력그룹사 간 협의회는 온실가스 감축 핵심 기술 확보 및 글로벌 기후시장 선점 등의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은 해외 주요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에너지 시스템 및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관련 공동 프로젝트 발굴 협의²⁾

* 11개 전력그룹사 : 한국전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때 이른 더위... 녹조 확산에 대비한 녹조 비상 대응 체계 가동

환경부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인해 녹조현상을 유발하는 오염원인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액체비료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하고, 녹조의 발생정도와 확산 경로 분석을 위해 주 1~3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수질분석을 실시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³⁾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2018년부터 공기 중 미세먼지를 정화해 주는 수소차 출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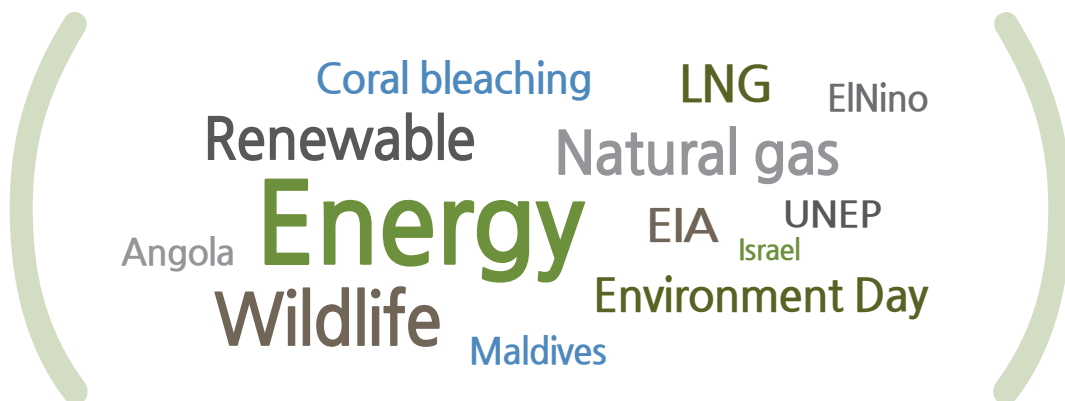
수소차는 차량 외부 공기중의 산소와 차량 내에 저장된 수소를 화학적으로 반응시켜 발생되는 전기를 통해 오염된 공기를 청정공기로 정화시킬 수 있으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수소차 출시를 통해 심각한 미세먼지 배출 문제 해소 전망⁴⁾

1)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확정 발표", 환경부, 2016.06.03

2) "공공기관 '기후변화 대응' 힘 모은다", 파이낸셜뉴스, 2016.06.07

3) "일찍 찾아온 더위에 정부 발 빠른 녹조 대응 나선다", 뉴스토아트, 2016.06.02

4)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2018년부터 수소차 출시 러시", 전자신문, 2016.06.06



세계 환경의 날, 올해의 슬로건은 야생동물 불법거래 근절

유엔은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 지정하고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하는 하나의 주제 아래 약 100여 개의 국가에서 해마다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도록 격려

올해의 슬로건인 'Go wild for life'는 지구상의 다양한 생명체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적극적(Go Wild)으로 행동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¹⁾, 주최국으로는 야생동물 불법거래로 인해 코끼리 멸종 위기에 놓인 앙골라가 채택

[지난 5년 간 세계 환경의 날 슬로건]

2012	Green Economy: Does it include you?
2013	Think, Eat, Save.
2014	Rise your voice, not the sea level
2015	Seven Billion Dreams, One Planet, Consume with Care.
2016	Go wild for life

몰디브의 산호 백화 현상 확산, 1998년 엘니뇨 피해 이후 최악 수준

인도 몰디브 해양연구센터(MRC)는 몰디브 내 암초에 붙은 전체 산호초의 10~15%는 완전한 백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50~70%는 백화 현상이 시작되었다고 보고하였고²⁾, 이에 지난 1998년 엘니뇨 피해 후 복원 과정에 있는 산호초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 증가

미국 에너지정보국(EIA), 신재생에너지 성장 204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 예측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은 전기 시설망을 이용하는 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이 2040년까지 매년 약 2.6%씩 증가하고³⁾, 에너지 소비량도 향후 30년동안 48%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

레비아탄 가스전 개발을 통해 천연가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 노블 에너지의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승인하면서 올해 레비아탄 가스전 개발 시작이 예상되는 가운데⁴⁾ 본격적인 생산과 수출은 2019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이스라엘산 천연가스 잠재 고객으로는 이집트, 터키, 요르단, 키프로스, 그리스 등이 거론

1) Go wild for life, UN says on World Environment Day", UN News Centre, 2016.06.05

2) "Coral bleaching spreads to Maldives, devastating spectacular reefs", The Guardian, 2016.06.01

3) "U.S. renewable energy capacity to more than double by 2040, EIA forecasts", Fuelfix, 2016.06.02

4) "Noble Energy gets approval for Israel natural gas project", Houston Chronicle, 2016.06.02

오존주의보 경유 친환경 태양광
대기오염 발전소 미세먼지 녹색건축시범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 배출가스조작 케이블카
기후변화 수소전기차

한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내외 위험성 예측 및 원인규명을 위한 노력

정부는 지난5월부터 항공우주국(NASA)과 대기질공동조사를 실시하여 화력발전소와 정유 시설 배출 오염물질에 의한 미세먼지 평균농도 증가 확인

NASA는 한국의 대기 오염 연구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조사 횟수를 추가하고 2차 미세먼지 분석 및 서울의 높은 대기 오염 농도 원인 파악을 위한 항공 측정 진행¹⁾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60년 한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및 경제적 피해가 회원국 국가 중 가장 나쁠 것으로 전망하고, 인구집중 및 도시화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에의 집중적인 노출을 원인으로 지적²⁾

[OECD 대기 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²⁾]

구분	내용
현상	- 인구집중 및 도시화로 경유 차량, 공장 등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 - 초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의 지속적 증가
전망	2060년 대기오염 조기사망률 OECD 1위 2060년 한국 GDP 0.63% 손실 - 대기오염 관련 질병 의료비 증가 - 질병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 - 높은 오존농도로 농작물 수확 감소

초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 시범사업으로 7개 기관 운영 결과 연간 약 25억원의 전력 감축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에너지 소요량 절감 설계 기술을 적용하는 초에너지 절약형 건축시범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 중 준공된 7개 기관의 운영 결과 기존 설계공법에 비해 34~63%의 에너지 절감으로 1년에 약 25억원의 전력 감축³⁾

* 적용기술 : 고성능 창호, 고단열재, LED, 납축면 차량, 태양광, 지열, 복사 냉난방, 공조시스템, 옥상녹화, 고효율 환기, 대기전력 차단설비, 풍력 발전 등

환경 문제 · 에너지 공급 문제 · 지역 소득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신규 사업지 선정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소각장, 매립지, 가축분뇨처리장 등 지역 기피 · 혐오시설로부터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주민소득을 창출함으로써 환경과 에너지, 지역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사업모델로 2016년 신규 사업지 6개 지역 선정⁴⁾

* 6개지역 : 환경부 소관(강원 인제, 충북 음성, 충남 보령, 전북 완주, 제주), 산업부 소관(충남 서산)

정부의 보전산지 민간 케이블카 설치 규제 완화로 사업 활성화가 기대되는가운데 환경단체의 반발로 여전한 논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상권 활성화, 고용 문제 해결 등 경제 파급효과와 더불어 환경적 측면에서도 등산로 축소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환경 단체는 대규모 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지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로 사업 반대⁵⁾

1) "우항공우국 국내 대기질 조사 횟수 4회 추가...미세먼지 집중분석", 세계일보, 2016.06.08
 2) "한국 2060년 대기오염 원인 조기 사망률 경제 피해 OECD 최고", 조선일보, 2016.06.10
 3) "혁신도시엔 '초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이 있다", 국토교통부, 2016.06.13
 4) "친환경에너지타운 '16년 신규 사업지 6곳 선정", 환경부, 2016.06.09
 5) "말공산 해운대...다시 불붙는 케이블카사업", 매일경제, 2016.06.12



인도 타타파워, 웰스펀 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 14억 달러에 획득

인도의 전력 기업인 타타파워(Tata Power)가 태양광 업체인 웰스펀에너지(Welspun Energy)의 그린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14억 달러에 사들여 화제¹⁾

이번 거래를 통해 타타파워는 웰스펀에너지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 시설, 강관 사업 분야의 운영권을 획득하면서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진행해오던 재생 에너지 사업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

타타파워는 인도 GDP의 5%를 차지하는 대기업 타타그룹의 계열사로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이 주 사업이었으나, 석탄 수급 문제와 미국과 유럽에서는 환경적 문제로 석탄이 외면 받는다는 것에 기인하여 청정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방향 전환

* 타타그룹: 세계 곳곳에 철강과 자동차를 제조·수출하고 있으며, 재규어 랜드로버와 코러스, 테슬라 그룹을 인수해 큰 성장을 달성

6월 15일 세계 채식의 날을 맞아 지구온난화 문제 재조명

세계 채식의 날(World Meat Free Day)은 1년 중 단 하루라도 육식을 금함으로써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운동으로²⁾, 온실가스 배출로 생기는 지구온난화 현상은 나무와 숲을 사라지게 하고 생태계와 기후의 변화 가속화 문제 야기

미국 하원위원회, 오바마 정부의 오존 농도 상향 설정 규제 반대 법안에 투표³⁾

미국 하원위원회는 오바마 정부가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내세운 오존의 대기 농도 상한 65~70ppb로 상향 설정 규제를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오존 농도치가 낮을 수록 산업계의 금전적 부담이 적고 기업 성장, 투자, 일자리 창출이 용이하다는 점 강조

런던 시,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문제 개선 위해 경유에 대한 세금 인상 방침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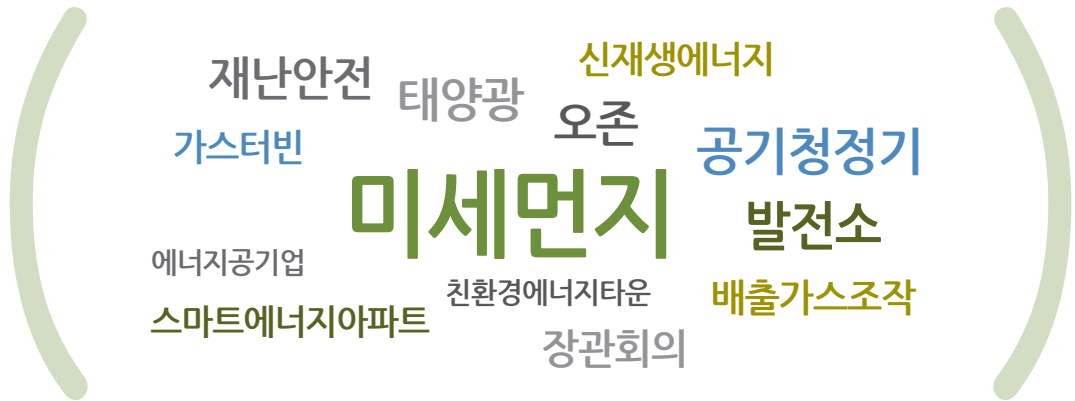
영국 런던 시는 수 년간 일반 승용차보다 큰 경유차의 진입을 제한하는 공해차량 제한구역(Low Emission Zone)을 운영 하는 등 다양한 대기오염·교통혼잡 문제 해결 정책들을 펼쳐왔으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버스 이용률마저 급감해 결국 경유 세금 인상 방침 고려⁴⁾

1) "Tata Power acquires Welspun Energy's renewable assets for Rs 10,000 crore", India Times, 2016.06.13

2) "World Meat Free Day 2016: Why vegetarianism could be our future", Independent, 2016.06.13

3) "House votes to delay ozone rule", The Hill, 2016.06.08

4) "Diesel car drivers could face tax hike", The Week UK, 2016.06.08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유해물질 검출, 일상 속 유해물질로 인한 심리적 불안 확산¹⁾

한 방송사에서 공기청정기 판매 상위 5개 회사 필터의 유해물질 검사 결과 2곳에서 유해물질인 옥틸이소티아졸리논(OIT)의 검출 발표

* OIT는 입으로 먹거나 피부에 닿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2014년 환경부에서 유해물질로 지정

가습기살균제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또다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자 소비자들의 불안감 가중

일부 관련 기업은 무상 교체 등을 진행하고, 환경부는 논란 제품에 대한 OIT 방출량 실험, OIT 독성정보 수집, 노출시나리오 작성, 위해성 평가 예정

[공기청정기 관련 연관어 분석]



한·중 경제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대책 논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국기업연합회와의 제11차 한중경제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10년 간 한국 4조 6,000억원, 중국 304조원)을 배정하고, 향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규명과 저감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 모색²⁾

전국 2천 개 초·중·고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까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옥상에 학교당 100kW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확산하고 학교는 전기요금 부담 경감이 가능케하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확산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대³⁾

공공·민간 협업으로 전력수요를 조절하는 ‘스마트에너지 아파트’ 업무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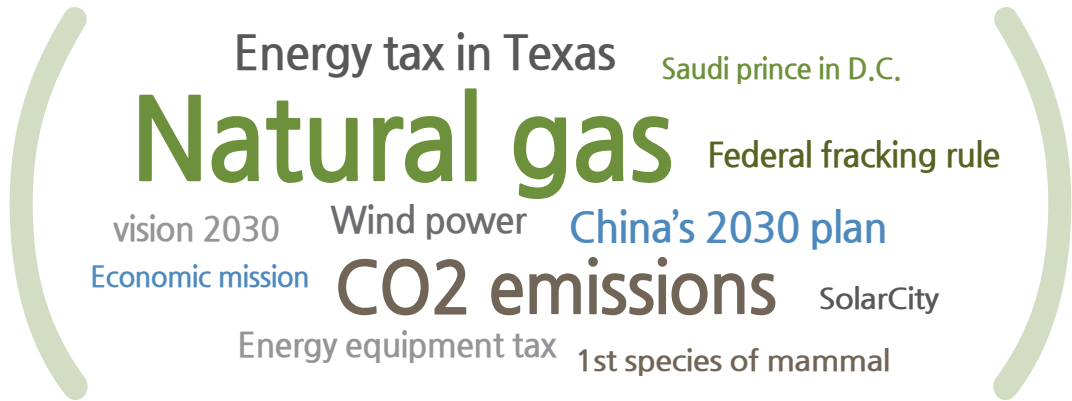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LG전자는 ‘스마트에너지 분야 상호 협력 및 기술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에너지 아파트를 구축할 계획이며, LG전자의 통합 에너지솔루션 역량과 LH의 공동주택 건축·관리 노하우를 결합해 글로벌 공동주택 스마트에너지 시장 선점 기대⁴⁾

1) '욕시에 떠 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 필터서 검출된 OIT는 어떤 물질', 아시아경제, 2016.06.20

2) '전경련 중국 하얼빈서 '한·중 경제회의' 개최... 인프라 시장 공동 진출·미세먼지 대책 논의', 조선비즈, 2016.06.19

3)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치... 일자리·수익 '두 토끼 잡는다', 매일경제, 2016.06.16

4) 'LG전자, LH와 손잡고 '스마트에너지'아파트 만든다', 헤럴드경제, 2016.0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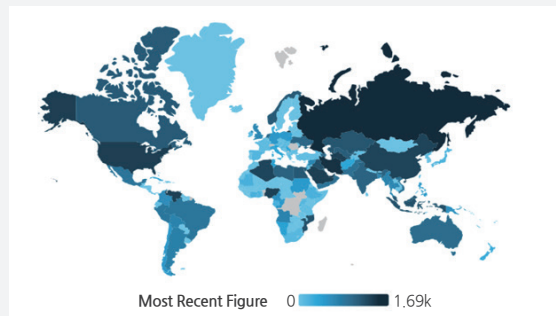


천연가스, 미국 내 전력원으로서 석탄 첫 추월¹⁾

영국 최대 석유회사 BP는 연간 통계 보고서를 통해 작년 미국 내 발전소들에서 천연가스 사용량이 석탄 사용량을 처음으로 추월했으며 이러한 행보는 미국 내 뿐만 아니라 작년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고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천연가스 사용량 증가 추세와 더불어 석탄 사용량은 전년도 대비 미국 내 15%, 세계 30% 감소했고,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년도 대비 0.1% 상승했는데 2009년을 제외하고는 1992년 이래 최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

[2015년 말 기준 국가별 천연가스 보유 현황¹⁾]



중국, 2030년까지 풍력 전력 공급량을 국가 전체 전력의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확대 계획²⁾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에너지 안보, 시장화 개혁, 대기오염 완화'라는 3대 에너지 정책 발표 이래 에너지 개혁을 진행해온 중국이 2020년까지 풍력발전 설비 용량 2억kW 달성과 2030년까지 국가 전력 4분의 1을 풍력으로 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개혁 가속화 전망

사우디아라비아 부왕세자, 탈 석유 중심 경제 개혁안 '비전 2030'과 외교 정책 설명 위해 워싱턴에 방문

지난 1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살만 부왕세자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의회 의원들과 군사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자국의 경제 개혁안을 홍보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왕세자의 방문 목적을 최근 이란과의 핵 협상 문제로 악화된 양국의 관계 개선으로 분석³⁾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된 첫 포유 동물 발생

호주 퀸즐랜드 주 정부와 퀸즐랜드 대학 연구팀은 호주에 서식하는 설치류인 '브렘블 케이 멜로미스'가 2009년 이후 목격되지 않는 이유를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한 것으로 최종 결정짓고, 멜로미스를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한 첫 포유류로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⁴⁾

1) "Natural gas surpasses coal as power source for 1st time, BP report says", Fuelfix, 2016.06.17

2) "China to generate a quarter of electricity from wind power by 2030", The Guardian, 2016.06.20

3) "Saudi prince sweeps through Washington on diplomatic, economic mission", Fuelfix, 2016.06.17

4) "Mankind just killed off its first species of mammal because of climate change", Independent, 2016.06.15

온실가스 감축
배출가스조작
미세먼지
기후기술로드맵
가습기살균제
장마
신고리
석탄화력
친환경에너지공원
경유차
매립쓰레기
배출권거래제

신고리 5·6기 건설 허가안 통과... 2021~2022년 준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57회 회의를 열고 울산 울주군 일대 고리 지역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안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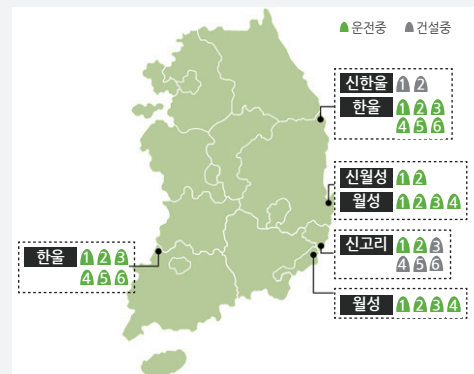
* 신고리 5·6호기는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용량 1400MW, 설계 수명은 60년

2011년 12월 신한울 1·2호기 이후 5년 6개월만의 신규 원전허가가 통과됨에 따라 국내 원전은 모두 30기(가동 24기)로 증가

원전 관리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즉각 착공에 나서 2021년 3월 신고리 5호기, 2022년 3월 신고리 6호기를 각각 준공 예정¹⁾

정부와 지역사회는 신규 원전 건설로 경남지역의 경기침체와 실업문제 해소를 기대하고 있으나 일부 환경단체에서 안전성 문제 제기²⁾

[국내 원자력발전소 현황]



정부, 배출권 할당 인센티브 확대 · 외부감축사업 기준 추가 개발 계획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고효율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배출권 할당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외부감축사업 기준도 추가로 개발해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³⁾

* 외부감축사업은 기업이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 시 해당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인정해주는 것

정부,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하고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을 지원해 환경문제 대응

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노후 경유차를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시 구매가격의 10%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친환경 소비 유도⁴⁾

국내 기후 기술 관련 연구과제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기후기술로드맵(CTR) 완성

미래창조과학부는 기후변화 관련 13개 부처, 718개 연구과제의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 관리할 수 있는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limate Technology Roadmap)을 완성하고 2030년까지 기후 기술 기반 온실가스 감축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지원할 예정⁵⁾

1) "원안위, 신고리 5·6기 건설안 '허가'", 중앙일보, 2016.06.23

2) "서생주인들 '신고리 5·6기' 허가 환영...지역경제 도움", 연합뉴스, 2016.06.23

3) "배출권 시장 인센티브 확대 · 외부감축사업 기준 추가 개발...가정활성화 유인", 파이낸셜뉴스, 2016.06.22

4) "[2016] 경제정책] 노후경유차, 신차로 바꾸면 세금 100만원 덜 낸다", 조선비즈, 2016.06.28

5) "미래부, 기후기술로드맵 완성...기후기술 연구과제 한자리에", 이데일리, 2016.06.28



미국·캐나다·멕시코, 2025년까지 청정 에너지 비중 50% 증가 목표¹⁾

지난 29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3개국 회담(Three amigos summit)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참석해 청정 에너지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

3국 정상들은 2025년까지 청정 에너지를 사용한 전기 생산 비중을 50%까지 늘리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사안에 대해 37%의 목표치를 설정한 것과 비교해 13% 상향 조정된 수치

미국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화력 발전소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비중이 전체 전력 생산의 절반에 가까웠으나 지난해 기준 화력 발전 이용 전력 생산은 33%, 원자력 발전 이용 20%, 수력 이용 6%, 풍력 이용 5%, 나머지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

캐나다도 미국처럼 청정 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멕시코는 청정 에너지 발전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

인도 국영 전력업체 NHPC, 코이나 댐에 600MW 태양전지 제조사업장 설립 계획 공개

인도 국영 수력전력 기업인 NHPC는 인도 마하라슈트라에 위치한 코이나 댐에 600MW 규모 생산량을 가진 태양전지 제조사업장을 설립할 계획을 공개하며 이미 기술적, 재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밝혀 인도의 발전 시장 성장에 더욱 기여할 전망이다²⁾

테슬라, 태양광업체 솔라시티 인수 제안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30%의 프리미엄을 주고 주식교환 방식으로 태양광업체 솔라시티를 인수해 테슬라의 자회사로 편입시키겠다고 밝혔으나, 두 기업 모두 수익보다 투자와 지출이 커 투자자들과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아 인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³⁾

미국 에너지트랜스퍼 사, 330억 달러 규모의 윌리엄스 인수 합의 철회

미국 에너지 자산운용사인 에너지트랜스퍼에쿼티(ETE)는 작년 9월 경쟁사인 윌리엄스를 약 330억 달러에 인수 합의한 후 막대한 세금 발생 가능성 문제로 인수 승인을 거부했고 이에 윌리엄스는 인수 추진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지난 24일(현지시간) 패소 판결⁴⁾

1) "US, Canada, Mexico detail continent-wide clean energy plan", The Hill, 2016.06.29

2) "NHPC plans 600 MW solar project at Koyna dam in Maharashtra", Economic Times, 2016.06.26

3) "Tesla bids for SolarCity", Mercury News, 2016.06.22

4) "Energy Transfer ends \$33 billion Williams merger", Fuelfix, 2016.06.29

시진핑 리수용 미사일
공무원 종업원탈북
20대국회 쿠바 미세먼지 대책
경유값 사드배치 프랑스
대북제재 비핵화 아프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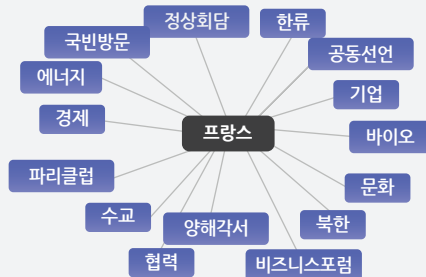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 채택, 신사업·문화 융성 분야 협력 확대

['프랑스' 관련 연관어 분석]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이루어진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공조 강화 및 경제·문화 분야 협력 체계 확대를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ICT와 바이오, 문화 콘텐츠 공동
제작을 비롯한 27건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선진 채권국
협약체인 '파리클럽' 가입 추진¹⁾

또한, 한·불 간 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ICT융합, 바이오,
인공지능 등 신산업분야의 공동연구 강화 및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략적 협력 동의서 체결²⁾



정부는 폐기된 제출법안 가운데 197건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 발표

법제처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197건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발표하였으며, 소관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22건), 해양수산부(22건), 문화체육관광부(18건), 고용노동부(18건), 법무부(17건), 국가보훈처(13건),
국토교통부(12건), 교육부(10건) 등을 포함³⁾

경유값 인상, 고깃집 규제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 10명중 7명이 불만족

지난 1일 전국 19세이상 성인 519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시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9%가
경유값 인상 및 고깃집 규제 등의 정책은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대책이므로 '불만족스럽다'고 응답⁴⁾

한국·쿠바, 사상 첫 외교장관회담 진행... 경제적 문호 개방 및 한류 문화 확대 등 수교 의사 전달⁵⁾

한반도 사드(THAAD)배치에 대한 한·미·중 간 갈등 논란 지속

1) "한불 공동선언 채택"...MOU 27건 체결, 매일경제, 2016.06.04

2) "한류, ICT-바이오-AI 신산업 기술협력...27건 MOU 체결", 연합뉴스, 2016.06.04

3) "정부, 20대 국회에서 폐기법안 197건 재추진", Redian, 2016.06.02

4) "경유값 인상 등 미세먼지 대책, 10명 중 7명, 모든 지역 '불만족'", 조선일보, 2016.06.07

5) "쿠바 젊은 관료들 수교 적극적, 카스트로 실득이 관련", 중앙일보, 2016.06.07



오바마 대통령, 장기 수감 중인 비폭력 마약사범 42명 추가 감형 조치¹⁾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42명의 장기 수감 비폭력 마약사범에 대한 감형을 실시하겠다고 발표

백악관 측이 올해 3월 말 마약사범 61명의 형량을 줄여주거나 사면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2개월 만에 내려진 추가 감형 조치로써 이번 발표로 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 감형된 수감자는 총 348명으로 증가

이는 지난 50년 간 미국의 어떤 대통령보다도 많은 숫자의 범죄자들의 형을 감해준 것일 뿐만 아니라 전임 부시 대통령의 경우 임기 중 11명에 대해서만 감형을 해줬던 것과도 대조되는 현상

미국의 2014년 말 기준 수감자 수는 약 156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인구 10만 명당 수감자 수가 698명에 달하게 된 원인을 '비폭력 마약사범들에게 지나친 중형 선고'로 판단해 감형 조치를 통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영국독립당 나이젤 파라지 대표가 영국에 호주식 이민 점수제 도입을 주장해 호주 이민 제도에 대한 관심 증가

나이젤 파라지 UKIP 대표는 “호주식 이민 점수제 도입을 통해 이민의 양과 질을 국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 호주는 국가 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자에게 이민 기회를 주고자 이민 점수표를 만들어 60점 이상일 경우에만 이민 신청 자격 부여²⁾

미 뉴욕 주 트럼프 대학의 학생 유치를 위한 영업지침서가 공개되며 논란 확산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설립한 트럼프 대학의 직원 배포용 영업지침서(playbooks)가 공개된 가운데 책 내에는 특정 단어들을 사용해 수강생을 현혹시키거나 감정을 이용해 수강 유도를 하라는 조언 등이 자세히 적혀있어 사회적 파장이 예상³⁾

열대성 태풍 콜린 플로리다 주 강타, 주 정부 비상사태 선포⁴⁾

지난 6일 새벽(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에 최대 풍속이 시속 85km에 달하는 강풍과 20cm 깊이의 폭우를 동반한 열대태풍 콜린(Colin)이 찾아와 홍수 및 범람 피해를 냈으며 이에 주지사 릭 스콧은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및 휴교령 선언 등 피해 방지에 총력 대응

1) "Obama commutes sentences for 42 more offenders", Washington Times, 2016.06.03

2) "How does Australia's points-based immigration system work?", Express, 2016.06.02

3) "Trump University's aggressive playbook revealed: Students were encouraged to max credit and dip into savings by sales staff at failed school", Daily Mail, 2016.06.01

4) "Tropical Storm Colin nears Florida; governor declares emergency", Denver Post, 2016.06.06

최고인민회의
20대국회 개원 협치 법안발의
구조조정 구의역 불법조업 성과연봉제
민생 공공기관 기증조정 북한식당 러시아

급증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퇴치를 위한 한국·유엔 공동작전 수행 등 대책 마련

최근 불법조업 중국어선 급증에 대해 군·해군·유엔군사령부는 공동의 민정경찰을 편성하고 한강하구 불법조업 중국어선 퇴거를 위한 공동작전 실시¹⁾

서해 북방한계선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기동전단'도 보강하여 함정은 7척에서 9척으로 증대, 해경특공대는 3배·특수기동대는 2배 증원하고 헬기 배치²⁾

또한, 각계는 실효적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역 시민단체는 북방한계선 북쪽 중국어선 퇴치가 가능한 남북 공동어로수역 지정을 촉구하고³⁾ 여당 대변인은 유엔과 공조를 통한 중국당국과의 외교협상 진행 의견 제시⁴⁾

[2015 '기동전단' 시범운영 실적⁵⁾]

구분	2015.04.01 ~2015.04.22	2015.10.14 ~2016.01.03
검문검색	151척	481척
나포	20척	137척
퇴거	251척	9,218척
차단	528척	11,885척

20대 국회 개원식 진행, 여·야 협치를 통한 일자리 문제 등의 민생 해결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개원연설에서 화합과 협치를 강조하며 규제, 일자리, 구조조정 키워드와 미래, 개혁, 성장동력 등을 언급했으며,⁶⁾ 국민 대상 '정부와 20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여론조사에서는 일자리 창출, 경제 양극화 완화, 경제 성장, 삶의 질 개선 순 결과⁷⁾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발표

에너지 분야는 출자회사의 정리와 전력판매·가스도입 분야 민간개방 확대 등을 진행하고 환경 분야는 국립공원 주차장과 휴게소 민간 운영 증대 및 생태·생물 관련 4개 공공기관 통합 등을 진행하며 교육분야는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 일원화 등 유사 중복 기능 조정⁸⁾

박원순 시장은 구의역 사건을 통해 조명된 하도급 구조 개선 대안으로 공동도급제와 소규모 복합 공사 확대 등 언급⁹⁾

북한 관련 핵원료 확보의 플루토늄 생산 재개 정황과 중국내 북한식당 한국인 출입금지 등 화제 성과연봉제 120개 공공기관 확대 도입을 완료한 한편 노동계의 노동3권 위반 주장 등 반발로 갈등 지속¹⁰⁾

1) '군경·유엔사, 한강하구 불법조업 중국어선 퇴거...1953년후 처음(종합)', 연합뉴스, 2016.06.10
2)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해경 기동전단 인력 장비 크게 보강', 경향신문, 2016.06.15
3) '중국 어선 씨알리는 불법조업에 "남북 공동어로수역" 제정', 뉴스1, 2016.06.13
4) '여야, 정부에 한 목소리로 "북방한계선 불법조업 대책 촉구"', KBS, 2016.06.12
5) '해경, 불법 외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 국민안전처, 2016.04.04

6) '박 대통령 20대 국회 개원연설, 최다 언급한 단어는?', 매일경제, 2016.06.13
7) '정부·20대 국회에 바라는 최우선 과제 1~4위가 "민생·경제"', 한국일보, 2016.06.10
8) '〈공공기관 개편 요약〉', 연합뉴스, 2016.06.14
9) '박원순 시장 "건설 하도급 개선, 구의역 사고 재발 막을 것"', 머니투데이, 2016.6.16
10) '기재부 "120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100% 도입 완료"', 동아일보, 2016.06.10



미 정부, 백악관 고위 관리 통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연기 공식화¹⁾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수개월간에 걸친 논의 끝에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완전 철군을 연기하는 방침을 공식 발표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13년만인 지난해 종전을 선언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군 9,800여 명이 주둔해 있는데 미 정부는 당초 이 병력을 올해 5,500명으로 줄인 뒤 내년 중 완전 철군하는 것을 계획했었으나,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안보 불안을 이유로 철군 일정 조정을 요청하면서 계획 연기

백악관 고위 관리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일단 내년까지 이 병력을 그대로 잔류시킨 후, 본래 계획했던 것처럼 5,500명으로 줄여서 아프가니스탄 군 훈련과 자문 등의 업무 수행을 지속할 전망

도널드 트럼프 위해 3명의 여성 지지자가 3천만 달러 규모의 슈퍼팩 조성²⁾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 3명의 여성 지지자가 'Women Vote Trump'라는 이름의 3천만 달러 규모 슈퍼팩을 조직해 여성비하 발언과 여성편력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트럼프의 여성 지지를 회복에 도움 예상

* 슈퍼팩(super PAC)이란 캠페에는 소속되지 않고 외곽에서 합법적으로 모금과 지지 활동을 벌이는 미국의 민간 정치자금 단체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 국경 안전과 이민법 강화 정책 제시³⁾

미국 연방하원의회 폴 라이언 의장은 국경 안전과 이민 단속, 불법 체류 외국인 추적, 이민 비자 심사 등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이민단속 우선 정책을 제시했는데, 과거 이민개혁파였던 라이언의 입장 변경은 반 이민구호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

미 민주당 캘리포니아 경선 결과는 클린턴 56% 대 샌더스 43%

지난 7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 지명을 위한 캘리포니아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득표를 56%를 기록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이후⁴⁾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샌더스 상원의원에게도 협력 요청

1) *Officials: White House OKs expanded Afghanistan airstrikes", US News, 2016.06.09

2) "3 Women launch super PAC to support Donald Trump", Daily Mail, 2016.06.08

3) "Ryan stresses border control, immigration in security plan", U.S. News & World Report, 2016.06.08

4) "Hillary Clinton wins California primary, routing Bernie Sanders", Huffington Post, 2016.06.08

산업은행 감사원 개헌 세월호
미사일 신공항 테러대상
김해공항 탈북
대북제재 중국어선
맞춤형보육 전관예우

국정원, IS 테러대상에 우리 국민 포함 확인... 테러 위협에 대한 경각심 고취¹⁾

국가정보원은 ISIL(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의 다른 이름)이 국내 미국 공군시설의 좌표와 우리 국민의 신상정보를 메신저에 공개하며 테러 대상으로 지목하고 선동한 사실 확인

지난3월 벨기에 테러 발생으로 반(反)IS동맹국에 대한 보복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IS의 꾸준한 테러 위협에 대해 국민들의 경각심 고취 필요성 강조¹⁾

한편 국가정보원은 대국민 경각심을 위해 해당 내용을 공개했으나 이 과정에서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국가기관의 개인 정보 공개로 인한 해당 인물과 지역의 불안감 조성 등 문제점 대두²⁾

[이슬람국가(IS) 우리나라 테러 위협 일시¹⁾]

구분	내용
2015.09	IS온라인 잡지 다비크에서 국제동맹군 합류 관련 국가 명단에 한국 포함
2015.11	테러 위협을 담은 온라인영상에서 'IS에 대항하는 세계동맹국'에 태극기 포함
2016.02	IS가 공개한 동영상 중 테러 대상 지목에 우리 국민 명단(20명) 포함
2016.06	국내 미국 공군기지와 국내 복지단체 직원 1명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

중국어선 불법조업 혐의에 대한 첫 선박 몰수 판결로 향후 빠른 담보금 징수와 재범 감소 효과 기대
법원은 지난 12월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한 중국어선 관련 공판에서 불법 조업 혐의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선박 몰수 판결을 내렸으며 해경은 불법조업에 대한 선박몰수가 계속될 경우 담보금 징수가 빨라지고 재범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³⁾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청탁·로비 및 고소득 수입료 등에 대한 탈세 혐의 수사 진행⁴⁾

감사원, 산업은행의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에 대한 재무점검 미이행 등 소홀한 관리감독 지적⁵⁾

국정원, 탈북 종업원들의 자발적 입국 여부 등에 대한 인신보호 소송 심리에서 종업원들의 신변 보호 결정

북한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접견이 거부당하자 탈북 종업원들의 입국이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인신보호 소송 심리가 진행되었으나 국정원은 종업원들의 신변 보호를 결정하고 심리에 법정 대리인만 출석⁶⁾

1) "IS, 우리 국민 테러대상 지목 두 번째...계속되는 테러선동", 연합뉴스, 2016.06.19
2) "IS 테러 대상이라던 한국인, 테러 위협 없었다", 한겨레, 2016.6.20
3) "1차 '선박 불법조업' 혐의 첫 몰수...단속 힘 싹쓸듯", YTN, 2016.06.16
4) "배, 흥만표는 '실패한 로비' 결론...의혹 수사에는 계속", 연합뉴스, 2016.06.20
5) "산업은행, 대우조선 분식회계 눈감고 3200억 성과급 전치 묵인", 한국경제, 2016.06.15
6) "변호사만 출석한 북한식당 종업원 재판, 결국 중단", 한겨레, 2016.06.21



미 민주당, 총기규제 촉구 필리버스터 15시간 만에 의회 표결 동의 획득

미국 민주당 크리스 머피 코네티컷 주 상원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21분(현지시간)부터 총기규제 강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14시간 50분 후인 16일 오전 2시 11분에 공화당의 투표 방침 확약을 받아낸 뒤 종료를 선언

현재 상원에는 테러 감시 명단에 오른 자의 총기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과 총기 거래 시 구매자의 신원을 의무 조회하도록 하는 법안 2건이 계류되어 있으며, 마지막 관련 법안 표결은 지난해 12월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이루어졌고 부결로 처리

공화당은 지난해 12월 총기 구매 금지 법안이 부결된 이후 총기 규제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관련 법안 표결에 일체 응하고 있지 않던 상태였으나 최근 총기 규제 강화 촉구 여론이 확산되는 점 등을 고려해 머피 의원의 장시간 필리버스터에 결국 항복¹⁾

머피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1900년대 이후 미국에서 9번째로 긴 필리버스터로 기록되어 화제

필라델피아 시의 '소다세' 도입 결정으로 탄산음료에 세금 부과하는 최초의 미국 대도시 등극²⁾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시의회는 설탕이 든 청량음료나 탄산음료에 온스 당 1.5센트(리터당 35펜스)의 세금을 부과하는 '소다세(Soda tax)' 도입 투표를 실시했고 찬성 13표, 반대 4표로 법안이 통과되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식 적용될 예정

마스조에 요이치 일본 도쿄도지사, 정치자금 유용 논란 끝에 사임 결정

지난 15일 일본 도쿄도의회는 8차례에 2억 1천 300만 엔(한화 23억 6천 436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해외출장 경비, 관용차 사적 용도 이용, 부적절한 정치자금 사용 등의 문제로 한 달 넘게 사퇴 압박을 받아온 마스조에 요이치 도쿄도지사의 사임을 정식으로 결정

러시아 해커, 미 DNC 전산망 침입해 도널드 트럼프 관련 자료 입수⁴⁾

미국 언론들은 러시아 정부 해커들이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의 전산망에 접속해 트럼프 공화당 대선 예비후보의 법무·납세 등 민감한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입수했으며 러시아 정부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러시아 정부는 해킹 사실을 부인

1) "Congress Stalemated on guns despite shooting, filibuster", AP, 2016.06.16
2) "Soda tax passes; Philadelphia is first big city in nation to enact one", Philly, 2016.06.18
3) "Tokyo governor to resign over misuse of funds", Daily Mail, 2016.06.15
4) "Russian operatives hack into DNC server, steal Trump file", Post Gazette, 2016.06.15

대북제재 세비
비상대책위원회 추경 채용 최저임금
위안부 김영란법 **무수단** 신공항
가습기살균제 세월호 경제민주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합동 훈련

북한은 22일 미군 잠기지 타격이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험에 처음으로 성공했으며, 북한 당국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자체 평가¹⁾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하여 한국·미국·일본은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미사일 경보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훈련을 통해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 공조체계 강화²⁾

한편,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 대응 훈련에 한국이 편입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마찰이 불가피한 사안이어서 편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으나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해당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일축³⁾

[북한 미사일 관련 연관어 분석]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 대두, 보좌관 운용에 대한 친인척 채용 금지 법제화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물의를 빚자 각 당은 보좌관 임용 시 친인척 채용을 제한하거나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대책 마련(관련 법안은 17대 국회부터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자율성 등의 이유로 폐기 처리)⁴⁾

중국을 포함한 35개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 제출 등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

북한에 대한 해운·항공 운송 차단, 대외교역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35개국이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한편⁵⁾,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면서 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북한 경제 제재 1년 연장⁶⁾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30일 만료, 철근 선적 의혹 제기 등 활동을 수행했으며 연장 기한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⁷⁾

1) "북 '무수단 시험 발사 성공, 미국 공격 능력 보유' 선전", MBC, 2016.06.23

2) "한·미·일, 첫 미사일 경보 훈련... '北 미사일 대비 공조 강화'", KBS, 2016.06.29

3) "한·미·일, 북 탄도미사일 탐지 첫 훈련... 'MD 편입 논란'", JTBC, 2016.06.28

4) "친인척 채용 금지 12년 전부터 발의... 이번에도 말 건지?", JTBC, 2016.06.30

5)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 중국 등 35개국 접수(종합)", 노컷뉴스, 2016.06.28

6) "오바마 "북한은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대북제재 1년 연장", 경향신문, 2016.06.22

7) "끝까지 백만 명이... 세월호 특조위 종료", 경향신문, 2016.06.29



미 대법원, 오바마 대통령 이민 개혁 행정 명령에 대해 기각 결정¹⁾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낸 이민 개혁 행정 명령 관련 소송에 대해 찬성 4 대 반대 4로 기각 판결

이번 소송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행정 명령의 항소법원의 기각 결정에 반발한 오바마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대법관 표결 결과 동수 판결 시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한다는 미국 법에 따라 이민 개혁 행정 명령은 중단 결정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이민 개혁 법안 추진이 어려워지자 의회의 승인이 불필요한 행정 명령을 2012년부터 총 두 차례 발동시켰고, 두 번째 명령은 미국 내 1천 1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 중 약 4백만 명에 대한 추방을 유예시키는 내용을 포함

대법원의 기각 판결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 발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으며,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 내에서 다방면으로 기여하고 있으므로 법을 준수하는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

미 민주당 하원의원들 공화당 상대로 총기 규제 관련법 표결 요구 연좌농성

미국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공화당의 의회 표결 동의를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상원에서 총기 규제 강화 법안 4건이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됨에 이어 하원에서도 표결이 이뤄지지 않자 22일(현지시간)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의사당 내에서 연좌농성을 진행²⁾

미 상원, 공화당의 지카 바이러스 예산 축소안 표결 결과 찬성 60표를 넘지 못해 부결

미국 내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8백 명을 돌파해 백신 개발, 질병 치료 등의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공화당은 오히려 예산 절감을 주장하며 28일(현지시간) 예산 축소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부결 되어 한동안 양당의 대립 예상³⁾

영국 노동당 제레미 코빈 대표, 당내 코빈 대표 불신임안 투표 결과 찬성 172표로 가결됐음에도 결과에 불복⁴⁾

지난 28일(현지시간) 영국 노동당 전체 의원 229명을 대상으로 한 제레미 코빈 대표 불신임안 투표 결과 찬성 172표, 반대 40표로 가결됐고, 코빈 대표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투표이므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새로운 당 대표 선출은 불가피할 전망

1) "No to Obama's immigration plans, Supreme Court says", Washington Times, 2016.06.23

2) "C-SPAN uses social media feeds to cover sit-in protest", PBS Newshour, 2016.06.23

3) "Senate Democrats block GOP's Zika funding bill", Miami Herald, 2016.06.29

4) "Corbyn refuses to quit despite LOSING no confidence vote as 172 Labour MPs go against him", Express, 2016.06.29

소개의 글

피터 드러커는 “미래 예측이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미래성을 이해하고 현재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말한다. 미래를 예측하려면 현재를 더 유심히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미래예측의 관건은 현재의 드러나는, 또는 드러나지 않는 여러 현상을 설명하는 변인을 파악하고, 의미 있는 가설을 통해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우리는 그 출발이 바로 데이터에 있다고 본다. 데이터 속에 담긴 수많은 함의를 찾아내는 과정은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창으로 안내해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미래를 보는 첫걸음으로 먼저 데이터를 통해 현재를 읽고자 한다. 광범위한 환경 스캐닝으로 현재의 트렌드와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전망하는 단서를 얻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축적되면 정책입안자들에게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고, 국민들에게는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데이터 속에서 미래의 변화 방향을 탐지하고,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기를 바란다.

NEAR & Future Monthly

NEAR : Trend & Issue

금주의 키워드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행정 각 분야별 뉴스를 중심으로 평균보다 노출 빈도가 높은 키워드 수집

NIA 빅데이터분석활용인프라에 수집되는 일간지 및 경제 · 전문지 등 분야별 뉴스사이트 346여개의 텍스트데이터 분석

금주의 토픽

매주 주목해야 할 키워드를 선정, SNS 분석을 통해 토픽에 대한 일반국민의 세부 관심사와 여론 동향 분석

코난테크놀로지 펄스K 솔루션을 활용, 한국 트위터 사용자 830만명 및 블로그 월평균 6백만 포스트 분석

이달의 이슈 포커스

주간 토픽 중 시의성이 높은 이슈를 선정, 국내외 전문자료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심층 분석 · 전망

Future :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 및 전략 수립 관련 동향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 및 전략 수립 관련 국내외 동향과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데이터기반 미래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소개

NEAR & Future Monthly

발 행 일	2016년 8월 10일
발 행 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 미래전략센터 (ICT미래전략팀)
데이터분석	(주)코난테크놀로지 (김예슬, 나소현, 노정아, 백수진, 홍순진)
자 문 위 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여치현 변호사 대주회계법인 오충한 회계사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이성환 교수 핸디소프트 기술연구소 이승호 소장 법무법인 이산 이형범 변호사 디스커버리 인베스트먼트 장하석 회장 사단법인 역사문제연구소 한상구 박사 소셜컴퓨팅연구소 한상기 대표/공학박사
주 소	(대구본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제주 글로벌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8-11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전 화	(053) 230-1114
팩 스	(053) 230-1907
U R L	http://www.nia.or.kr